2012 방송문화진흥회 연구용역

방송연구지원 결과보고서

과제명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탈북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기간	2012년 4월 19일 ~ 2012년 11월 18일

책임연구원: 오원환

경성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초빙외래교수

공동연구원: 이미나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조교수

제출일: 2012년 11월 19일

<목 차>

[표목차] ---- iv
[그림목차] ---- v
[연구 요약] ---- 1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목적 ---- 6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7
제2절. 연구내용
1. 연구방향 ---- 8
2. 국내외 관련 연구 동향 ---- 12
3. 연구문제 ---- 17
제2장 연구방법
제1절. 질적 연구 ---- 19
제2절. 양적 연구 ---- 21
1. 주요 개념 ---- 21
2. 개념의 측정 ---- 23
3. 자료 수집 ---- 32
4. 응답자의 기초 정보 ---- 38
제3장. 연구결과
제1절. 질적 연구의 결과
1. 탈북 시기에 따른 한류 수용의 변화 ---- 36
2. 한국 방송의 수용과 탈북 동기 ---- 63
3. 한류 콘텐츠의 수용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응 ---- 68
4. 소결 ---- 78
제2절. 양적 연구의 결과
1. 탈북 시기에 따른 한류 수용 경험의 특성 ---- 81
2. 한국 대중문화 수용이 한국 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91
3. 소결 ---- 99
제4장. 결론 및 함의

1. 결론 ---------- 102
2. 함의 ---------- 106

[참고문헌] ---------- 108
[별첨1] 설문지 ---------- 111

<표 목 차>

<표 1. 1차 FGI 참여자: 셋넷학교 재학생> ---------- 20
<표 2. 2차 FGI 참여자: 셋넷학교 졸업생> ---------- 20
<표 3. 3차 FGI 참여자: 셋넷학교 신입생> ---------- 20
<표 4. 전문가 심층인터뷰 참여자> ---------- 21
<표 5. 응답자 기초 정보> ---------- 34
<표 6. 북한 거주시 한국대중문화 이용현황> ---------- 82
<표 7. 북한 거주시, 제3국 체류기간, 조사기관에서의 대중문화 이용량> ---38
<표 8. 입국년도와 한국대중문화 소비량의 관계> ---------- 87
<표 9.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평가와 문화적 할인 변인에 대한 요약> --------09
<표 10.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분석> ---------- 94
<표 11. 문화적 할인과 한국 적응간의 상관관계> ---------- 59

<그림 목 차>

<그림 1> 한국대중문화, 음악, 영화, 방송의 수출변화 ---------- 9
<그림 2> 국내입국자 수의 변화 추이 ---------- 10
<그림 3> 한류의 시공간적 수용 경험의 변화<그림 1> ---------- 44

[연구 요약]

1. 분석방법

■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탈북청소년의 탈북 동기,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정착과 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양적 조사를 병행하였음.

■ 우선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초점그룹인터뷰(FGI)를 3회 실시(총 13명)했고, 탈북청소년 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4회 실시(총 4명)함. 질적 연구 자료는 설문지 조사를 위한 문항 설계에 활용됐고, 아울러 양적 조사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여 해석하는 데 활용함.

■ 설문 조사의 측정 항목은 한국대중문화 수용 경험과 한국 사회와 문화 적응을 중심으로 하였음. 한국대중문화 수용 경험은 북한 거주시기, 탈북 후 제3국 체류기간, 입국 후 조사과정 등 세 가지 시기별로 구분하였으며 소비한 장르와 소비량, 소비 방식 등을 조사하였음. 또한 문화적 할인 개념을 응용하여 북한 주민 으로 살아온 삶의 배경 정보들이 한국대중문화 소비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는 스노우볼 샘플링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셋넷학교와 의정부 소재 한꿈학교 두 곳을 방문하였음. 이외에 탈북청소년이 잘 다니는 교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설문응답자를 모집하고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음.

2. 주요 분석결과

■ 2000년대 전반기에 탈북한 경우는 주로 북한보다는 중국에 불법 체류 중 한류 콘텐츠를 시청할 기회가 더 많았고, 2000대 후반의 경우는 주로 북한에서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것으로 보임. 이것은 한류 콘텐츠의 유통 환경에서의 오는 차이와 탈북자의 재중 체류 기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탈국경의 이동 양상에서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의 그것과 달리 비정치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나 탈북청소년에게 소구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보임. 그리고 북한 사회로 전달되지 않는 많은 정보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한국

적 모습에 대한 왜곡된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탈북 시기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었음.

■ 탈북 시기를 고려할 때, 수용 공간에 따른 한국 대중음악의 수용에서 이른바 '유행의 지연'을 발견하게 됨. 즉, 최근 시점에 가까울수록 북한 내부의 한류 콘텐츠들은 다양하고 폭넓게 확산되지만, 적어도 대중가요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한물간' 콘텐츠들이 북한 내부에서 여전히 폭넓게 수용되고 있었음. 적어도 대도시가 아닌 함경도와 같은 다수의 탈북자들이 거주했던 공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

■ 탈북 동기 혹은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환상적 기대는 탈북 시기보다는 드라마에 대한 노출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소문 등이 무성하지만, 영상 이미지가 제공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한국 대중문화를 접한 경험이 탈북 동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특정 계기들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해 보임. 청소년의 탈북 동기에서의 특정 계기들이란 '북한 가정에서 부모사이의 불화', '가족 해체와 재구성 과정에서의 불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탈북', 혹은 '10년이란 세월의 오랜 군대 생활에 혐오' 등이 있을 수 있음.

■ 남한보다 가부장적 풍토가 강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드라마 등을 통해서 보이는 남한 사회의 남녀 관계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충격적으로 경험되기도 함. 그러나 이후 남녀 간의 성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북한과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적응해 나감으로써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나름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임.

■ 한국에 대한 환상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서울의 표준말에 대한 체득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기도 함. 이는 조선족 거주 지역에서 재중탈북 청소년이 조선족 청소년의 한류에 대한 열망을 간접 경험하면서도 증대됨.

■ 북한 거주 시 총 157명(85.3%)이 한국대중문화와 접촉이 있었으며 27명(14.7%)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북한에 거주할 때

한국대중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드라마는 알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101명, 70.1%), 가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판(68명, 44.4%)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한국 소식을 접할 때는 매체보다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경우가 많았으며(53명, 35.6%),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을 모두 포함했을 때 한국 대중문화를 접할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는 역시 알판이었음.

■ 한편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가요, 뉴스를 등을 주로 접하는 방식은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알판을 빌려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92명, 62.2%), 남한에서 오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를 직접 잡아서 보거나 듣는 경우(24명, 16.2), 장마당에서 직접 알판 등을 사서 보는 경우(14명, 9.5%)의 순이었음. 또한 한국대중문화를 보는 방식은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같이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친구들, 63명, 42.9%; 61명, 41.5%).

■ 제3국 체류기간에 한국 대중문화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드라마(132명, 74.6%), 영화(31명, 17.5%), 가요 프로그램(9명, 5.1%), 한국 관련 방송 뉴스(5명, 2.3%)의 순으로 나타났음. 제3국 체류기간의 한국대중문화의 장르별 이용량이 북한 거주기간과 비교했을 때 드라마, 영화, 뉴스, 대중가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곧 제3국에 머무르면서 한국대중문화를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중국이나 태국과 같은 제3국에서는 한국대중문화를 접하는 것이 쉽다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입국 후 조사기간 중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정도는 하루 1~2시간(70명, 39.1%), 하루 5시간 이상(50명, 27.9%), 하루 3~4시간(35명, 19.6%), 거의 보지 않는다(23명,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1시간 이상 한국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비율은 약 86%이며 하루 3시간 이상 한국대중문화를 소비한다는 중이용자 역시 47.5%로 거의 50%에 달했음.

■ 입국시기별 차이는 제3국 체류기간의 한국영화 소비량에서 발견됨.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일수록 탈북이후에서 입국이전까지의 제3국 체류기간 동안, 한국영화를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r = −.15, p =.05). 이 점은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일수록 제3국의 체류기간이 짧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국대중문화를 소비하고 느낀 점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한국드라마가 재미있

고 한국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다고 평가함. 또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북한의 드라마와 영화와 줄거리가 많이 다르다고 느끼며 배경 역시 생소하다고 느낌. 대신에 사용하는 말이나 인물의 생김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낌. 대중가요를 접하면서 재미있다고 느꼈으며 자주 대중가요를 따라 불렀고 친구들과도 자주 같이 부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사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뉴스의 경우,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한국의 뉴스가 한국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자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과 친밀함을 느끼고 있지만 동포로서의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는 느끼지만 생각이나 행동 등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있어서는 한국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 탈북자는 차별이나 적대감을 크게 느끼지는 않으며 한국문화에 대해 느끼는 충격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만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며 북한동조 정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개인적인 삶에 대한 평가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한국사회와 한국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함. 특히 5년 뒤의 개인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남.

■ 한국대중문화의 선경험은 지각된 차별감과 지각된 적대감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차별에 대한 인식과 적대감에 대한 인식은 대중문화소비에 따른 간접적 학습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주위의 관찰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짐.

■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충격과 한국에서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문화적 충격은 드라마와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정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음. 또한 뉴스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느낄수록 한국사회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충격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드라마와 영화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콘텐츠에서 그려지는 한국적 현실을 보고 이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음. 뉴스가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려 준다고 느낄수록 문화적 충격이 크게 느낀다는 점 역시 이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한국말에 대한 이해는 대중문화의 수용양상과 긴밀한 연관을 보여줌.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는 드라마나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것, 드라마와 영화가 한국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대중가요를 재미있다고 평가하는 것, 대중가요를 친구와 같이 자주 따라 불렀다는 응답, 뉴스가 한국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 등과 모두 정적 관계를 보였음. 이것은 대중문화를 소비하면서 이를 즐기고 이를 통해 한국 현실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한국을 알고 있다는 평가에 긍정적으로 공헌하고 있음을 의미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탈북청소년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의 양상 분석

한국 드라마로 개척된 아시아의 한류를 넘어서 K-pop을 앞세워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탈북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K-pop 수용경험과 함께 한국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최근 몇 년 동안 통일부의 하나원 시설에 입소한 탈북청소년 중 일부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대중가요와 춤을 남한 교사들이 놀랠 정도로 많이 알고 곧잘 따라한다고 전해진다. 이는 북한의 청소년 문화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그들의 놀이문화의 하나로 자리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돼 왔으며, 그러한 변화가 한국 사회의 문화적응이란 차원에서 탈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과 탈북 동기의 변화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논의된 탈북 동기는 식량난에 따른 생계위협이 절대적이었으나, 2000년대 초중반부터 점차 탈북자의 삶의 질 개선이 탈북의 중요한 동기로 부각됐고 있음을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아울러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경험이 탈북 동기의 변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작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선경험이 탈북과 한국으로의 유입 동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경험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탈북 동기가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는 삶의 의미와 연결되고, 그러한 지점에서의 의미의 변화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해간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 경험과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 간의 관계 분석

연구자의 참여관찰 경험에 따르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선경험이 탈북청소년으로 하여금 한국 청소년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비현실적인 환상을 꿈꾸게 만들어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로도 작동해왔음을 삶의 현장에서 종종 목격해왔다. 따라서 초기 탈북청소년과 최근 탈북청소년 간의 한류에 대한 경험적 차이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적응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한국 대중문화의 선경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응에 관한 시간적 차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정체성의 형성기에 놓인 탈북청소년의 경우에 낯선 한국의 문화적 풍경이나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경험과 기억들이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는 다양한 삶의 의미들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연구주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한국 사회로 진입하는 탈북청소년의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정서를 검토하여,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균형적인 문화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정책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남한주민과의 상호 이해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K-pop 수용의 다면적 양상을 드러내어 한국문화 전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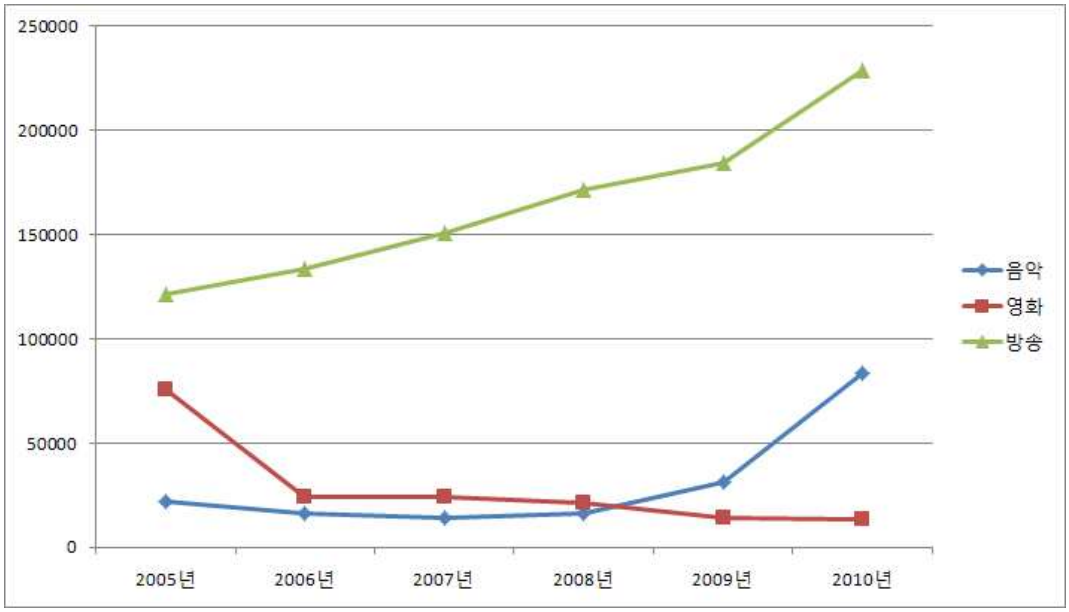
▷ 탈북청소년의 문화적 활동과 태도에 대한 분석으로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실질적 도움 방안 모색
▷ 탈북청소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개발과 정책적 제언
▷ 탈북청소년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사회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탈북청소년과 남한주민과의 상호이해 도모

제2절. 연구내용

1. 연구 방향

K-pop은 한류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대중문화상품의 국가 간 경계 이동현상을 장르와 국가, 수용자 측면에서 확대시키면서 기존의 한류에서 '신한류'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은 최근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수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이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의 경우는 근래, 곧 200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현황은 대중음악을 위주로 한 K-pop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K-pop은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 중심의 한국대중문화수출 지역을 중남미, 유럽 등지로 확대하고 있으며 드라마, 대중음악 중심에서 탈피, 한국음식 및 한국어 등의 한국문화 전파와 한국 상품의 소비 및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등 양적 질적인 면에서 기존의 한류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양상이다(김주연·안경모, 2012; 류은영, 2011; 정수영, 2011). 이러한 경향은 K-pop이라는 문화상품의 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로 인해 문화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Web 2.0과 같은 이용자 참여 중심의 미디어(상품) 이용환경의 변화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손승혜, 2011; 심두보·노광우,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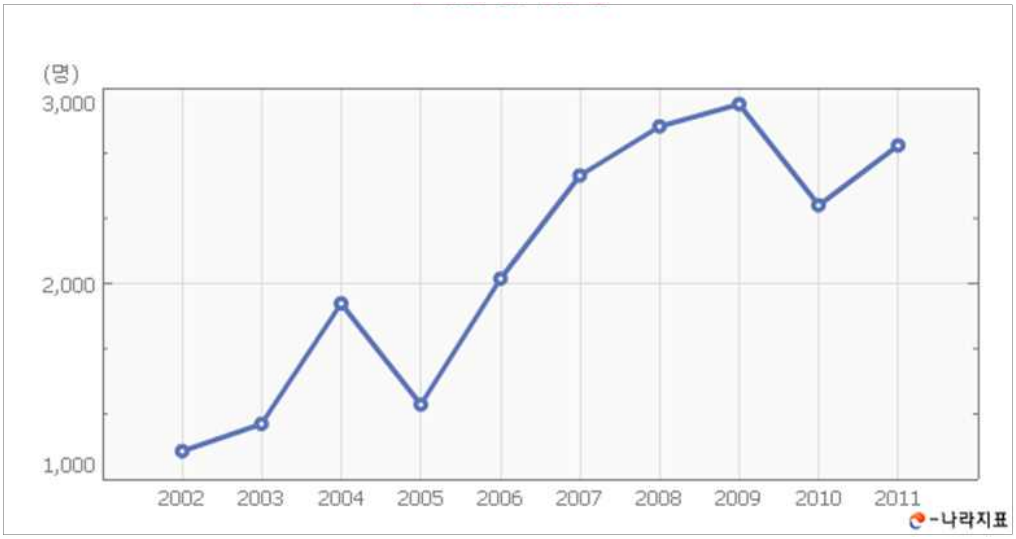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대중문화, 음악, 영화, 방송의 수출변화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콘텐츠 산업통계』.

한편, 2000년대의 북한탈북자의 수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탈북자의 국내 입국은 증가하였고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1]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382명이 입국한 시점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2,026명에서 2,917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감소하였다가 작년 2011년에 다시 2008년 수준으로 회복했다(e-나라지표)(<그림 2 참조>). 탈북자의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중반의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를 배경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북한 내 암암리에 확산돼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류콘텐츠는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도시의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하위문화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도 주장되고 있다(윤선희, 2011; 박정란·강동원, 2011; 이기동, 2011; 오양열, 2011).

1)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은 1997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됐고,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식 명칭과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흔하게 유통되는 탈북자라는 명칭을 병기한다.



<그림 2> 국내입국자 수의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언론학계는 이와 관련해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미디어 수용이 한국 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탈북자의 증가와 한국대중문화 노출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에서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미디어 노출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북한 거주시의 한국대중문화 노출, 탈북 후 제3국에서의 한국대중문화노출, 그리고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의 조사와 교육 과정까지의 한국대중문화의 노출 등, 탈북자 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한 한류콘텐츠의 수용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홀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적, 공간적 차이들을 통해서 한류콘텐츠의 수용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 정착이후의 미디어의 효과에 집중한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계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에 탈북한 탈북자들이 북한 사회에서 한류를 처음 수용했던 시기가 청소년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0대에서 30까지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형성이 진행되는 과정이며, 문화콘텐츠의 수용에 보다 민감한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류콘텐츠의 수용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정착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본 연구는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몇몇 소수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머물고 있는 것을 탈피하여 탈북자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

할 정도의 수를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동시에 사용하여 질적 연구를 통한 탈북자들의 한국대중문화 수용양상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 양적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의 한국대중문화수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분석의 어려움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는데 먼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현실적 어려움 중의 하나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곧 충분한 숫자의 응답자를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 정착하기 이전, 곧 북한 거주시와 탈북 이후 제3국 체류 기간 동안의 한국대중문화의 수용의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자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미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만 최근에 탈북한 탈북자들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연구의 다른 어려움 중의 하나는 탈북자들이 서베이의 질문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 서베이에 기본이 되는 척도에 대한 이해 등, 탈북자들은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 서베이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많은 수의 탈북자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또한 설문문항 역시, 탈북청년을 대상으로 독이성을 점검하여 재작성 후 조사를 실시했다.

2. 국내외 관련 연구 동향

1) 한류 수용 경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

K-pop에 대한 연구는 문화상품 장르의 확대와 지역 확대, 향유 집단의 확대, 접근 채널의 다양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예, 김주연·안경모 2012; 심두보·노광우, 2011; 정수영, 2011; 류은영, 2011; 손승혜, 2011). 가령 K-pop은 유튜브를 통해 '소녀시대'의 '지(Gee)' 뮤직비디오를 보게 하며(심두보·노광우, 2011), K-pop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고 한국방문의도를 높인다는 것이다(김주연·안경모, 2012). 또한 한국과 일본 같은 특이한 역사적 국가 간 관계에서 상호국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계기로 발전될 수도 있음이 제시되었다(정수영, 2011). 그러나 K-pop에 대한 연구는 기존 한류에 대한 논의가 지녔던 제한적 논의 틀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품교역과 국가이미지, 한국방문 등과 경제지표에 우선을 둔 상업적 관심에 집중하고 있으며(손승혜, 2011). 더군다나 한반도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통합과 같은 정치적이고 민족적 차원의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는 이러한 타문화간 문화상품의 소비를 미디어 텍스트가 이해되는 과정과 문화 간 충돌과 변용의 과정을 통한 개인의 문화실천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해석과정을 강조하는 입장과 문화 간의 접경과 충돌에 관심을 갖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타국의 문화상품(예, TV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과정은 홀(S. Hall)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주의 연구자들에서 의해 의미가 발생하는 과정과 맥락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 왔다(Ang, 1989; Hall, 1980; Morley, 1992)[2].

문화 간 충돌되는 문화상품소비의 양식을 이해하는 핵심개념은 의미가 생성되는 문화적 맥락의 차이는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과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된다. 문화적 근접성(Straubhaar, 1991)은 전통, 신념체계, 종교, 언어 등의 지역문화가 텍스트가 만들어진 문화와

2) 예컨대, 앙(1989)은 미국 드라마 '달라스(Dallas)'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빠져드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차별적으로 이해하는 수용자집단의 이해방식을 분석했으며, 몰리(1992)는 미디어 텍스트는 텍스트 자체를 넘어서는, 텍스트가 이해되는 맥락이 있다고 보고 미디어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해독 맥락이 작용함을 보였다. 또한 이에 기반을 두어 리브즈와 카츠(Liebes and Katz, 1993)는 국가간의 미디어 텍스트 이해방식을 달라스를 대상으로 고찰하여 개별 문화내부에서 통용되는 혹은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해석의 규약에 따라 문화상품의 이해가 달라짐을 지적하고 있다.

얼마나 가까운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문화적 할인(Hoskins & Mirus, 1988)은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특별히 반감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세경·이경숙(2001)은 한국, 중국, 홍콩/대만의 드라마를 분석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소비 감성, 유교문화와 가치 등과 같은 지역문화적(Geocultural)특색이 있음을 관찰했다. 김승현(2004)은 이와 같은 현상을 지역문화권역내에서 진행되는 문화교류의 양상으로 보며 아시아적 문화양식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적 속성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내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콘텐츠가 국가를 넘어 타국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수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이해과정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적 맥락은 다른 문화의 문화상품이 지역문화 수용자에게 소비될 때 특정 문화의 양상에 따른 차별적인 문화수용방식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수용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지식의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권에서 유통되는 한국드라마는 북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소비 감성, 유교문화와 가치에 대한 지역문화적 특색이 있다는 것이며(유세경·이경숙, 2001), 국가마다 드라마나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의 차별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한국드라마에서 가족애, 순수함과 같은 가치에 끌리게 되고 한국인은 한국드라마에 없는 요소를 일본드라마에서 찾음으로써 일본드라마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하겠다(유승관·정성호·안수근·이화행·김채환, 2009).

문화적 맥락은 미디어 콘텐츠 수입 환경의 측면도 포함하는데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이 수입되어 유통됨으로써 지역의 수용자들은 타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장르별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인은 기존에 수입되어온 한국드라마의 장르적 관습에 익숙하게 되고 이러한 장르 학습에 따른 결과가 관찰되기도 한다(허진, 2002). 한국인 역시 중국TV 프로그램의 수용양상에서는 중국TV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을 인식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성의 인식이 드라마의 내용이 친숙하다는 평가를 가져오고 중국드라마를 추가적으로 찾게 되는 동기로 작용한다(최양호, 2003).

이러한 문화간 미디어 콘텐츠의 수용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는 의미가 생성되는 문화적 맥락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과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을 들 수 있다.

문화적 근접성(Straubhaar, 1991, 2003)은 전통, 신념체계, 종교, 언어 등의 지역문화가 텍스트가 만들어진 문화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의미한다. 문화간의 근접성은 여러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옷을 입는 방식, 인종적 특성, 바디 랭귀지, 유머에 대한 정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속도, 음악적 전통, 종교적 특성 등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Straubhaar, 2003). 문화적 근접성 이론에 따르면 특정 지역문화의 수용자들은 타국의 문화콘텐츠 중에서 문화적 근접성이 높은 콘텐츠를 선호한다고 예측된다.

문화적 할인(Hoskins & Mirus, 1988) 역시 문화간의 비슷한 요소가 타국의 문화콘텐츠를 수용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동의하며 특히 문화적 할인은 콘텐츠의 특정 요소의 효과가 다른 문화에서는 반감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Shenkar, 2001; Waterman & Rogers, 1994). 문화적 할인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공통된 가치, 정체성, 언어 등과 같은 요소가 타국의 문화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Elasmar & Hunter, 1996; Rodrigues, 1994). 가령 스페인계 미국인들은 쿠바계 미국인 혹은 멕시칸계 미국인들보다는 본인들의 정체성과 비슷한 스페인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관찰되었다(Rodrigues, 1994). 특히 언어는 문화적 할인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언어는 문화권을 구분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도 작용하며 기존 연구는 언어가 문화적 할인 현상을 야기하는 주요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Mavasti, 2000; Dupagne & Waterman, 1995).

2) 탈북자 한류수용 경험의 특이성

문화콘텐츠의 소비에 대한 앞서의 기존 이론을 탈북자들의 한국대중문화 수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남북한의 문화적 수용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기존 논의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민족적 전통과 언어적 유사성에 따른 문화적 공감대가 잔존하지만, 분단이후 이질적인 체제 구축과 경쟁 과정에서 문화 교류가 엄격히 차단돼 왔으며, 수용자의 인식의 틀 자체가 이질적으로 형성돼왔기 때문이다.

오원환(2011)은 남북한 주민이 막연하게 한민족 공동체라는 동질성을 상상하고 있지만, 분단이후 한반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그러한 상상의 공동체성은 다양

하게 분열돼 왔고, 그러한 차이들이 현실에서 경험되는 계기는 한국 사회로 많은 수의 탈북자가 유입되면서부터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보다 흔하게는 일상에서의 언어적 차이, 즉 말투나 억양의 차이가 탈북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발동시키는 가장 흔한 계기라고 지적했다. 통일연구원(2003) 조사에서도 말투나 어휘, 용어의 뉘앙스 차이들로 인해서 탈북자가 한국 사회의 정착 과정에서 고충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윤인진, 2009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렇게 누적된 차별적 시선에 대한 경험은 한국 사회의 탈북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 말투와 억양을 빨리 따라하도록 부추기는 계기로도 작동했다(오원환, 2011).

한편, 위와 같은 이질성의 만남과 별도로 한류콘텐츠의 유행은 탈북청소년에게 북한 말투의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극이 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청소년 계층에서 진행되는 K-pop 한류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는 재중 탈북청소년에게 한국어는 선망의 언어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몇 년 새 북한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K-pop의 수용과 모방은 문화적 수용에서의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고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탈북청소년의 한류 수용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로 우선 윤선희(2011)는 북한 청소년들이 북한의 폐쇄적 환경 아래서 일상의 놀이문화로서 한류 영상을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의 의미를 북한 정권의 억압적 권력에 대한 북한 청소년들의 문화 저항이며 미시적 권력 생성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박정란·강동원(2011) 역시 하위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류의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기동(2011)은 한류 친화적인 문화를 체득함에 따라서 세대의식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오양열(2011)은 최근 북한 청소년이 소비하는 한류 문화상품은 주로 K-pop이며 기존의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식상해하는 선별적 수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탈북자의 한류 수용 경험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에 정착하기 이전에 탈북자들이 어떻게 한국대중문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해당 경험이 탈북자의 한국적응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미디어 노출이 어떻게 탈북자의 한국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특히 언론학계에서는 탈북자의 한국 사회의 적응 문제를 주로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이용이나 수용에 따른 사회 적응의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왔다(이창현, 2000; 성숙희, 2005; 곽정래·박승관, 2006; 이창현·김성준, 2007; 이창현·우민규, 2008; 금희조, 2008; 곽정래, 2011). 이창현(2000)은 탈북자의 남한방송 수용의 양상과 선호하는 프로그램 유형의 종류에 따라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수용과 거부 등의 구분을 통해서 탈북자의 문화적응의 유형들을 구분했다. 이민규·우형진(2004)은 한국 TV 드라마의 시청 정도와 남한 사회에 대한 문화 동화 정도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인관간계와 애인관계에 대한 태도, 부적절한 행위나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곽정래·박승관(2006)은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이용이 사회자본과 사회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매체 이용이 온라인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인터넷 활용이 대인신뢰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금희조(2008)는 탈북자의 사회자본의 형성의 문제를 탐구하면서, 미디어 수용의 효과가 남한 주민과 다르게 구축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이론과 방법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창현·김성준(2007)은 탈북자의 방송 수용의 특징을 분석하여, 탈북자가 남한 방송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갖는 시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미디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반면에 곽정래(2011)는 대중매체가 아닌 인터넷과 핸드폰과 같은 매개적 대인소통 매체가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매개적 대인소통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뉴스와 생활정보 이용과 같은 정보적 이용은 시민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오락적 목적으로의 이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탈북자의 미디어 수용에 대한 이러한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미디어 노출이 탈북자의 한국사회적응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기보다는 미디어의 효과에 국한시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 문화적 충격, 정체성 형성, 경제적 어려움 (성숙희, 2005, 전우택·민성길, 1996; 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탈북자의 한국사회적응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말하자면, 한국대중문화 콘텐츠의 접촉과 수용을 탈북자의 한국사회적응의 주요한 요

소의 하나로 간주하는 동시에 탈북자들이 겪는 적응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양쪽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하겠다. 또한 탈북자의 한국대중문화 노출은 탈북자와 한국인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강동완·박정란, 2011)가 있는 반면 한국 영상물이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환상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적응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선행 연구(예, 정병호, 2004)도 있어 탈북자의 한국대중문화 노출이 탈북자 개인의 사회적응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일관적인 논의를 살펴보는 것도 힘들다.

3. 연구문제

탈북자의 대중문화의 소비 및 수용과정은 일면적/단선적/정태적이기 보다는 다면적/다층적/구성적이며 상징적 교환이 이뤄지는 복잡성, 사회문화적 수용의 맥락성, 개인 및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의미획득과정, 개인의 문화적 실천 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상품 수용의 특징적 양상을 보다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탈북자의 한국대중문화상품 접촉 경험이다. 탈북자의 대중문화상품 수용과 소비에 대한 연구는 타문화간 문화상품소비의 측면을 포함하면서도 탈북자 개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 같은 실질적 문제, 남북한 민족적 정체성의 변화와 수립과 같은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과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00년 중반에 유입된 탈북 청소년과 최근 탈북청소년과의 차이가 감지되고 있어 탈북자에 대한 한국대중문화 수용 양상에 대한 이해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탈북자 연구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주제 중 하나는 탈북 동기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즉, 1990년대 중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탈북에서 점차 삶의 질 향상으로 변했으나 여전히 생활고가 가장 높은 탈북 동기(배규식·김화순, 2008)이고, 경제적 차원보다는 생명과 인권 차원에서의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윤인진, 2010)도 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영상 콘텐츠나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북한 사회 내부로 폭넓게 확산되고, 그것이 탈북 동기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점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2010년부터 북한에서의 한류의 수용 양상

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여느 해보다 북한에서의 한류 확산과 수용에 대한 보고나 연구 등이 많이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이 탈북 동기나 탈북자의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향후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강동완·박정란, 2011)로 수렴되는 정도다. 아울러 한국 영상물이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환상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적응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선행 연구(예, 정병호, 2004)에 대한 반론 내지는 검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로 유입된 탈북청소년에게 한류 수용 경험이 탈북 동기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심이 있다. 특히 기존의 탈북자 연구가 조명하지 못한 부분인 탈북자의 거주시의 한국대중문화 수용 양식, 탈북 이후에서 한국 입국 이전의 체류기간 중의 한국 대중문화 접촉, 그리고 한국입국 이후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조사 및 교육 기간 등을 포괄함으로써 탈북자 개인의 탈북과 한국 입국과정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 한국대중문화 수용방식을 고려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에서 탈북청소년의 한국대중문화 수용 경험의 특성을 밝히고 <연구문제 2>에서는 한국대중문화 수용 경험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3>에서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가 한국 입국 시기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탈북청소년의 한국대중문화 수용 경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특히 북한 거주 시, 제3국 제류 기간, 입국 후 조사기간 과정의 한국대중문화 수용 양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탈북청소년의 한국대중문화 콘텐츠 수용 경험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1과 2에서 한국에 입국한 시기로 구분할 때, 탈북

청소년의 수용 경험의 특성과 수용 양식, 그리고 한국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차가 있는가?

제2장 연구방법

제1절. 질적연구

1)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탈북청소년을 3집단으로 구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 인터뷰는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이 공동으로 moderator 역할과 인터뷰 내용을 음성으로 기록하고, FGI는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진행했다.[3)]

FGI 참여자는 2004년에 '셋넷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신입생이다. 먼저, FGI를 위한 연구대상은 한국에 입국한 시기를 고려하여, 졸업생, 재학생, 신입생 그룹으로 나눴다.

한편, 탈북청소년을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함께 해온 전문가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교사 2명과 통일부 하나원 교사 2명을 각각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탈북청소년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에 관한 경험적 관찰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1) FGI 참여자 기초 정보

3)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어떤 한국 영상물(영화, 드라마, 가요 등)을, 얼마나 자주 봤는가? 주로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한국 영상물을 보았는가? 영상물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영상물을 보고 친구 혹은 가족과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영상물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바뀌었나? 영상물 외에 한국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듣게 됐는가? 탈북을 결심할 때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가? 북한에서 보았던 영상물 속의 한국과 실제 경험한 한국과는 어떤 것이 유사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 등.

<표 1. 1차 FGI 참여자: 셋넷학교 재학생>

이름	나이	성별	탈북 연도	한국 입국 연도	출신지
김솔희(가명)	21	여	2010	2012	함경북도
최진철(가명)	24	남	2010	2011	함경북도
이혁렬(가명)	25	남	2009	2010	함경북도
오민희(가명)	21	여	2010	2010	양강도
이수혁(가명)	24	남	2011	2011	황해남도

<표 2. 2차 FGI 참여자: 셋넷학교 졸업생>

이름	나이	성별	탈북 연도	한국 입국 연도	출신지
최길영(가명)	28	남	1998	2004	함경북도
최영훈(가명)	25	여	1999	2003	함경북도
김수혁(가명)	29	남	2002	2003	함경북도
김민영(가명)	28	여	2002	2002	함경북도
김영진(가명)	26	여	1999	2002	함경북도

<표 3. 3차 FGI 참여자: 셋넷학교 신입생>

이름	나이	성별	탈북 연도	한국 입국 연도	출신지
김영환(가명)	18	남	2011	2012	양강도
김희주(가명)	19	여	2011	2012	함경남도
이경철(가명)	19	남	2010	2012	양강도

(2) 심층인터뷰 참여자 기초 정보

<표 4. 전문가 심층인터뷰 참여자>

이름	소속	비고
박상영	셋넷학교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원주) 상근 교사
이미숙	셋넷학교	
최영숙(가명)	하나원	상근 교사
이준호(가명)	하나원	비상근 교사

제2절. 양적 연구

1. 주요 개념

(1) 주요 측정 항목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한 주요 측정 항목은 한류 수용 경험,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와 문화 적응 등이다. <연구문제 1>의 경우는 한류 수용 경험에 대한 것으로 이후 연구문제와의 연관에서 그 역할이 분석된다. <연구문제 2>는 한류 수용 경험이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추가로 <연구문제 3>에서는 앞의 주요 항목들이 입국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한류 수용 경험 분석
한류 수용 경험의 입국 시기별 차이
한류 수용 경험 →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 / 한국사회 적응

가. 한류 수용 경험

한류 수용 경험은 미디어 이용 및 노출과 미디어 콘텐츠 수용으로 구분하였다. 미디어 이용 및 노출은 한류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경로, 콘텐츠의 종류 및 양을 측정하는 것이며 미디어 콘텐츠 수용은 콘텐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 수용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할인 개념을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개발했다.

▶ 주요 항목: 한류 수용 경험
▶ 세부 항목: 미디어 이용 및 노출, 미디어 콘텐츠 수용(문화적 할인)

나.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은 태도적 측면에서 남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감정적 측면에서 친밀감, 민족적 정체성/동질감, 유사성을 포함시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태도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 주요 항목: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
▶ 세부 항목:
태도적 측면 : 남한 사람에 대한 태도
감정적 측면: 남한 사람에 대한 친밀감, 민족적 정체성/동질감, 유사성

다. 탈북 동기

탈북동기는 탈북동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탈북 동기 이외에도 남한을 선택한 이유를 측정한다.

▶ 주요 항목: 탈북동기
▶ 세부 항목: 탈북동기, 남한을 선택한 이유

라. 한국 사회와 문화 적응

기존 연구에서 탈북자의 한국 사회와 문화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됐다. 가령, 남한 사회의 범죄발생률에 대한 인식(살인, 강간, 폭력, 절도), 이혼, 질병 등의 남한 사회 문제 인식, 가족관계,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 등의 인간관계 인식, 언어를 포함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제적 만족도 등의 의식 척도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도, 우울도, 상대적 박탈감, 정체성 등이

개별 항목으로 측정됐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와 문화적응을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의식 척도에서 필요 항목을 사용하였다.

▶ 주요 항목: 한국 사회와 문화 적응 ▶ 세부 항목: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식척도

마. 입국 시기 등 입국 과정에 대한 변인

입국 시기, 입국 과정, 북한 거주 시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 주요 항목: 입국 시기 등 입국 과정 ▶ 세부 항목: 입국 시기, 입국 과정의 체류국, 북한 거주 시 주거지/ 직업 등

바. 사회경제적 변인

나이, 주거지, 소득, 직업 등의 기초적 사회경제적 변인이 측정됐다.

▶ 주요 항목: 사회경제적 변인 ▶ 세부 항목: 나이, 주거지, 소득, 직업

2. 개념의 측정[4)]

가. 한국대중문화 수용경험

한류 수용 경험은 콘텐츠의 내용, 수용 정도, 접촉 경로, 수용 환경 등을 측정하며 이를 북한 내, 제3국 체류기간 동안, 하나원 교육 과정 중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북한 거주 시

-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접한 매체)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① 텔레비전(전파) ② 테이프 재생기 ③ 알판(CD/DVD플레이어) 재생기
④ 컴퓨터 ⑤ 휴대용(PMP, MP4) 재생기

4) 실제 설문지는 <별첨 1>에 첨부하였다.

- 사용한 미디어)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한국 가요나 노래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① 텔레비전(전파) ② 라디오(전파) ③ 알판(CD/DVD플레이어) 재생기 ④ 컴퓨터 ⑤ 휴대용(PMP, MP3) 재생기

- 한국 소식을 들을 때 이용한 매체)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한국에 대한 소식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① 텔레비전 ② 라디오 ③ 휴대폰(중국/한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 ④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⑤ 삐라 등 전단지

- 북한에서 한국대중문화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미디어)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소식 등을 듣고 볼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까?

① 텔레비전 ② 라디오 ③ 알판 ④ 컴퓨터 ⑤ 휴대용 기기(PMP, MP3/4) ⑥ 휴대폰

- 한국대중문화 이용량)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다음 항목을 어느 정도 이용하였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텔레비전 드라마: _____ 개 이상을 봤음

(예: 풀하우스, 파리의 연인, 내 이름은 김삼순 등 3개 이상을 봤음)

◈ 한국 영화: _____ 개 이상을 봤음

◈ 라디오의 뉴스 방송: 일주일에 약 _____ 시간 _____ 분 정도 들었다 (예: 일주일에 1시간 20분 정도 들었다)

◈ 대중음악: 일주일에 약 _____ 시간 _____분 정도 들었다 (예: 일주일에 약 3시간 0분 정도 들었다)

◈ 텔레비전의 가요 프로그램: 일주일에 약 _____ 시간 _____분 정도 들었다 (예: 일주일에 0시간 30분 정도 들었다)

- 북한에서 한국대중문화나 소식을 접할 때 이용하는 매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가요, 뉴스 등을 주로 어떻게 접하게 되었습니까?

① 남한에서 오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를 직접 잡아서 보거나 들었다.

②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알판 등을 빌리거나 사서 보거나 들었다.

③ 장마당에서 직접 알판 등을 사서 봤다.

④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옆 칸에 써주세요.

- 한국드라마나 가요를 이용하는 방식)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가요 등을 접할 때 주로 누구와 같이 보셨습니까?

① 혼자서 봤다 ② 친구들과 함께 봤다 ③ 가족과 함께 봤다④ 그 밖에 다른 방법 _____

- 최초로 한국대중문화에 접한 시기)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가요 등을 처음으로 직접 보고 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약 _____년
- 북한 거주시 한국대중문화를 이용한 정도) 북한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요 등을 보고 들은 이후에 어느 정도 자주 이용했습니까?

① 거의 보지 않았다 ② 가끔 보았다 ③ 자주 보았다 ④ 계속 꾸준히 보았다

제3국 체류기간 중

-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소식을 들을 때 이용한 매체) 중국이나 태국 등에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요, 한국 소식은 어떤 것으로 보았습니까?

① 텔레비전 ② 라디오 ③ 인터넷 ④ 알판이나 MP3 ⑤ 영화 극장

- 가장 많이 이용한 한국대중문화 장르) 중국이나 태국 등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한국드라마 ② 한국영화 ③ 한국 가요 프로그램 ④ 한국 관련 방송 뉴스

- 한국대중문화이용량) 중국이나 태국 등에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 영화, 뉴스, 노래 등을 어느 정도 봤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 텔레비전 드라마: _____ 개 이상을 봤음
  - ◈ 한국 영화: _____ 개 이상을 봤음
  - ◈ 한국 관련 텔레비전 뉴스 방송: 일주일 약 _____시간 _____분 보았다.
  - ◈ 한국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 일주일 약 _____분 보았다.
  - ◈ 한국 대중 가요: 일주일 약 _____시간 _____분 들었다.
- 한국방송이나 소식을 알게 된 계기) 중국이나 태국에서 한국 방송이나 한국 소식을 가장 많이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텔레비전(위성) 방송을 보면서

② 인터넷으로 보면서
③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보여줘서
④ 가족, 친척, 친구, 아는 사람에게 들어서

- 한국대중문화 접촉 방식) 중국이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 등을 누구랑 같이 보았습니까?

① 혼자서 봤다 ② 친구들과 함께 봤다 ③ 가족과 함께 봤다
④그 밖에 다른 사람 _____

조사과정 기간과 하나원 교육 과정 중

- 한국대중문화 이용량) 조사 기관과 하나원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요, 뉴스 등을 하루에 얼마나 보았습니까?

① 거의 보지 않음 ② 하루 1~2 시간 정도
③ 하루 3~4시간 정도 ④ 하루 5시간 이상

- 가장 많이 이용한 장르) 조사 기관과 하나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 드라마 ② 가요 프로그램 ③ 뉴스 방송 ④ 영화

- 한국대중문화이용량) 조사 기관과 하나원에서 무엇을 많이 봤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텔레비전 드라마: _____ 개 이상을 봤음
◈ 영화: _____ 개 이상을 봤음
◈ 뉴스 방송: 하루에 약 _____ 시간 _____분 보았다.
◈ 가요 프로그램: 하루에 약 _____시간 _____분 보았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평가와 문화적 할인 변인

탈북자들이 한국대중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하였고 이외에 문화적 할인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질문 항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평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재미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위와 같은 척도 사용, 이하 동일)

‘한국의 드라마/영화는 한국의 사실을 잘 보여준다’

- 문화적 할인 변인)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북한의 드라마와 영화와 줄거리가 많이 다르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러시아,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와 비슷하다’

‘한국의 드라마/영화의 배경은 처음 보는 것이 많다’

‘한국의 드라마/영화에는 알아 들지 못하는 말들이 많다’

‘한국의 드라마/영화에서 배우의 모습은 북한 사람들의 생김새와 다르다’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평가와 문화적 할인

-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평가)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한국의 뉴스는 한국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 뉴스에 대한 문화적 할인)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다 ’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느끼는 평가와 문화적 할인

-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느끼는 평가)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재미있었다’

‘한국 노래를 자주 불렀다’

한국 노래를 친구들과 같이 불렀다

- 대중가요에 대한 문화적 할인)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했다’

‘한국 노래의 가사는 이해가 안 됐다’

나.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은 태도적 측면에 남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또한 감정적 측면에서 남한 사람에 대한 친밀감, 민족적 정체성/동질감, 유사성 등을 측정하였다.

- 남한 사람에 대한 태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솔직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정직하다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착하다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서로 돕는다
다정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다정하다
친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친절하다
가난하다	①	②	③	④	⑤	부유하다

- 남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 현재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한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한다'(위와 같은 5점 척도 사용, 이하 동일)

'나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 남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동질감/유사성) 현재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같은 동포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생각이 같다'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행동이 같다'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비슷한 풍습을 가졌다'

다. 한국사회와 문화 적응

한국사회와 문화 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의식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기존 연구의 항목을 참고하여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문화충격 등을 측정하였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모든 항목은 7점 척도로 측정, 1=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

지각된 차별감

'나는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한다'

지각된 적대감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싫어한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싫어한다'

문화충격

'한국사람들에게는 돈이 최고다'

'한국의 가족관계는 북한의 가족 관계와 같다'

'한국의 친구관계는 북한의 친구 관계와 같다'

'한국에서는 명문대에 들어가야 성공한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 해야 성공한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한다'

의식 척도에서 측정되는 요인은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전우택·윤덕용·엄진섭, 2004) 경제생활 만족도, 가치관 혼란,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측정하였다. 자세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7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 경제생활 만족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

'직장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 가치관 혼란)

'나는 한국사람이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모른다'

'옳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남북한 대표팀이 경기를 하면 북한을 응원한다'

'한국 방송에서 북한을 비난하면 기분이 나쁘다'

'한국 방송에서는 북한의 나쁜 모습만 보여준다'

-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현재 나는 마음이 건강하다'

'현재 나는 몸이 건강하다'

-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나는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한다'

'나는 남한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한다'

'내가 말을 하면 주변의 한국 사람들이 나를 쳐다 본다'

- 미래에 대한 전망)

'5년 뒤의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다'

라. 탈북 동기 및 입국 과정에 대한 변인

탈북동기와 입국 과정에 대한 변인은 아래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입국 시기 등 입국 과정에 대한 변인은 제 3국 체류국과 체류 기간, 이주 기간 등을 묻고 남한을 선택한 동기, 북한에서의 거주 지역과 학력 등을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탈북시기) 언제 탈북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탈북동기)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먹고 살기 힘들어서 ②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③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④ 북한 사회가 싫어서

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오라고 해서 ⑥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가려고 탈북 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같은 동포기 때문에

②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③ 한국에서는 신변 안전이 보장돼서
④ 한국 주민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⑤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에 있어서

탈북과정) 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오래 머문 나라는 어디입니까?
① 중국 ② 태국 ③ 베트남 ④ 라오스 ⑤ 몽골
⑥ 그 밖에 다른 나라 _____
그 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_____년_____개월
언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까? _____년_____월

마. 사회경제적 변인

나이, 성별, 주거형태, 현재 남한의 직업, 나이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과 응답지 선택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성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_____ 년
-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학력
  ① 인민학교(소학교) 졸업•중퇴 ② 고등중학교 졸업•중퇴
  ③ 전문학교 졸업•중퇴 ④ 대학교 졸업•중퇴
  ⑤ 나는 학교에 안 다녔다.
- 고향) 고향: _____도 _____시(군)
- 부모의 직업) 북한에서의 부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농부 ② 노동자 ③ 어부 ④ 간부
  ⑤ 교사(교수, 선생님, 의사) ⑥ 기타
- 거주형태)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① 혼자 살고 있음
  ② 가족과 같이 살고 있음(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음)
  ③ 형제와 같이 살고 있음 ④ 친구와 같이 살고 있음 ⑤ 기타
- 직업)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검정고시 준비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대학생 ⑤ 대학교 휴학 중

⑥ 직장인(정규직) ⑦ 아르바이트 ⑧ 가정주부
⑨ 취업준비생(자격증 공부) ⑩ 무직

3. 자료 수집

(1) 모집단 정의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나 탈북 후 제3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드라마, 영화, 가요, 뉴스)를 경험했던 적이 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연령대(9~24세)에 속했던 남·여

(2) 조사방법

질적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구성된 설문 조사(Survey research)

(3) 조사기간

2012년 6월 21일 ~ 10월 21일(4개월간)

(4) 표본추출방법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본 연구의 주요 의의 중의 하나는 양적 조사를 질적 조사와 병행한다는 것이다. 양적 조사는 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일정 수 이상의 응답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가능한 크기의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스노우볼 샘플링 방식을 이용하였다. 곧 연구자가 알고 있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우선 리쿠르트 하였고 이들을 통해 2차로 더 많은 응답자를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를 확보한 방식은 탈북자학교를 찾아가거나 탈북자들이 이용하는 교회를 방문하는 방법이었다. 탈북자 학교는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원주소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셋넷학교와 의정부 소재 한꿈학교 두 곳을 방문하여 설문을 마쳤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이 잘 다니는 교회는 영등포 소재 황금정 교회를 비롯해서 네 곳의 교회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해당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연구자가 개인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탈북청년들이 다

니는 교회이고, 예배에 참석한 주변 탈북청소년들에게 조사에 대한 협조를 긍정적으로 유도해 현장에서 직접 설문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대안학교로 가장 규모가 큰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정부 조사 이외에는 설문조사가 불허된다는 방침 때문에,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셋넷학교'와 함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대표적인 '한꿈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도 있었다(12명)

(5) 유효표본

184명

(6) 설문 문항 예비 점검

설문 문항의 어휘 및 내용의 독이성, 이해도 등을 위한 2차례 점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연구의 다른 어려움 중의 하나는 탈북자에 탈주민에 설문조사 방법에서 제기돼 온 문제 중 하나가 질문 내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탈북청소년과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했고, 최종 설문 내용은 탈북청년을 대상으로 독이성을 점검하여 재작성 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최종 설문 문항을 완성하기까지 2차례에 걸쳐서 설문문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했다.

4. 응답자의 기초 정보

<표 5. 응답자 기초 정보>

구분		응답자 비율
탈북 연도	~ 1995	1.1%
	1996~2002	25.4%
	2003~2007	30.8%
	2008 ~	42.3%
탈북 동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33.7%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33.7%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3.9%
	북한 사회가 싫어서	7.8%
	한국에 있는 가족이 오라고 해서	16.8%
	돈을 벌기 위해서	2.2%
한국행 탈북	예	43.3%
	아니오	56.7%
한국행 결심 이유	같은 동포기 때문에	18.1%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9.0%
	한국에서는 신변 안전이 보장돼서	26.0%
	한국 주민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18.6%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에 있어서	28.2%
탈북 후 최장 체류국	중국	63.0%
	태국	26.5%
	베트남	4.4%
	라오스	3.3%
	몽골	1.1%
	그 밖에 다른 나라	1.7%
최장 체류국에서 체류 기간	~ 3개월 이하	39.2%
	4개월~1년 사이	17.6%
	1~3년 사이	18.8%
	3~5년 사이	6.8%
	6년 이상	17.6%
한국 입국 연도	~ 1995	0.0%
	1996~2002	8.0%
	2003~2007	27.6%
	2008 ~	64.4%

출생 연도	30대	6.1%
	20대	73.9%
	10대	20.0%
성별	남성	38.8%
	여성	61.2%
북한에서의 학력	인민학교(소학교) 중퇴/졸업	32.8%
	고등중학교 중퇴/졸업	55.0%
	전문학교 중퇴/졸업	3.3%
	대학교 중퇴/졸업	5.6%
	나는 학교에 안 다녔다.	3.3%
출신지	함경북도	77.2%
	함경남도	5.0%
	평안북도	1.1%
	평안남도	4.4%
	황해북도	1.1%
	황해남도	0.6%
	양강도	10.6%
	강원도	2.2%
북한에서 부모 직업	농부	12.8%
	노동자	61.1%
	어부	0.6%
	간부	9.4%
	교사(교수, 선생님, 의사)	4.4%
	기타	11.7%
현재 동거인	혼자 살고 있음	29.5%
	가족과 같이 살고 있음(부모, 편부/편모)	56.8%
	형제와 같이 살고 있음	6.6%
	친구와 같이 살고 있음	4.9%
	기타	2.2%
현재 직업	검정고시 준비	14.8%
	중학생	2.2%
	고등학생	18.0%
	대학생	39.9%
	대학교 휴학 중	2.2%
	직장인(정규직)	6.0%
	아르바이트	1.6%
	가정주부	1.6%
	취업준비생(자격증 공부)	9.3%
	무직	4.4%

제3장. 연구 결과

제1절. 질적 연구 결과

1. 탈북 시기에 따른 한류 수용의 변화

1) 탈북 시기와 한류 수용 경험의 변화

이 연구에서 탈북 시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확산의 정도나 수용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그러한 수용 정도와 양상의 변화를 통해서 탈북 동기와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물론 기존 연구들이 주장하듯이 탈북 동기에서 이른바 '생활 위기'라고 하는 배고픔, 경제난 등이 가장 높은 탈북의 배경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질의 문제로 탈북하는 사례가 감지돼 왔다. 그러한 변화에서 한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가 출발했다.

> 2005년 이전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곳에 와서 밥 세 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았는데요. 근래 온, 작년, 재작년 친구들 몇몇은 그런 이야길 하더라구요. 거기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았는데 먹는 종류와 양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까지 힘들게까지 안 먹고 살아도 됐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다.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이미숙).

이미숙은 최근 탈북 동기의 변화는 식량난 외에 다른 요인들이 더불어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탈북청소년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탈북 동기의 차이들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에게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대량 탈북 사태 이후 북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나 가요, 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수용이 탈북 동기의 변화에 특정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최근 탈북 동기로 거론되

는 '한국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한류 콘텐츠가 제공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풍경들로부터 야기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드라마 속에 보이는 그러한 문화적 풍경과 물질적 풍요를 자신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줄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탈북자의 삶의 모습들이 북한 사회로도 전해지기 때문이다.

> 옛날에는 좀 그게(드라마 내용) 진짜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현실 가능한 것처럼 생각들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까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중국에 오래 있었던 애들이 많으니까. 옛날 아이들은 거의 뽕짝,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애들이 음악은 만날 뽕짝을 틀어놨어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안 그래요. 음악 틀어놓고 그럴 기회는 별로 없지만 간간히. 그럴 때 보면 비스트 음악 갖고 춤도 추고. 나도 전혀 모르는 음악들 갖고 한 두 명이 막 자기네가 만들어갖고 춤추는 것 보면 굉장해요(최영숙).

이와 같이 탈북 시기에 따라서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수용과 그 효과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는 탈북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수용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탈북 시기에 따라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한국의 대중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2005년 이전 탈북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경을 왕래하는 탈북자가 늘면서, 1990년대 말 중국에서 북한으로 중고의 카세트 플레이어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때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는 CD 플레이어로 대체되면서, 테이프 방식 플레이어의 중고물량이 값싸게 북한으로 유통됐다. 더불어 한국 대중가요 테이프가 함께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한국 문화는 확산된다. 특히, 트로트 음악 테이프가 유입되면서, 가족 단위로 그러한 문화가 공유된다.

다음은 2000년 전후로 탈북한 셋넷학교 졸업생들의 이야기다.[5]

5) 가능하면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때 탈북 시기가 빠른 친구의 말이 앞에 나오도록 순서를 배열했

98년도 초 탈북해가지고요. 그 때는 뭐 한국에 영상매체나 음악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1월 달에 중국에 가서 친척집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TV를 틀었는데, 이게 말투가 북한말투도 아니고 중국말투도 아니고 이상한 말투에요. 살살 녹이는 말투. 그런데 저는 그 말투가 막 낯설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그 영화를 제일 이해가 안되는 게, 밖에서 초인종 누르면 안에서 보잖아요. 그게 제일 신기했고, 그러고 음악 같은 거는 그 때 98년도에 자자의 <버스안에서>...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가사도 안 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리고. 그 노래를 한 3일 동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노래가 좋더라고요. 막 비트가 빠른 노래. 비트 빠른 노래를 들으니까, 한국 왔을 때 노래에 대해서 크게 별로 그런 거 없었고. 북한에서는 음악을 못 들었어요. 집에 녹음기도 없고 그 때 솔직히 북한에서도 북한 노래를 별로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드라마 시간 하게 되면 TV없으니까, TV 있는 집에 찾아와서 그때만 잠깐 보니까. 대문에서 문 뒤로 "테레비 좀 봅시다" 문 열고 들어와서 보고 그러고(최길영).

주로 가족들 위주로 (한국 노래) 많이 듣고, 친구들은 잘못 들으면 서로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진짜 간 쓸개 빼줄 정도로 친해야만(최영훈).

우리 큰오빠도 만날 다 잠그고, 나나 동생이나 이렇게 있을 때 조용히 다 커튼 내리고, 그러고는 이제 녹음기를 놓고서는 엎드려서 귀를 대고, 조금이라도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집에서 몰래 들었어요. 저는 근데 어렸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랬으니까 스치면서 들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최진희 노래 <사랑의 미로>라든가, 주현미 노래. 북한에서 들었던 것은 트로트나 이런 거였고(김영진).

방에서 커튼 치고, 대문 문 다 잠그고(김수혁).

만약에 영화나 노래를 듣다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테잎을 다 빼서 숨기고 문을 열어줘야 되요. 만약에 보다가 그냥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서 검열

다.

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보고 발각이 되는 거니까...(김민영).

북한에서 집에 녹음기가 있는 경우, 외부로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구성원끼리 몰래 한국 가요를 듣는다. 이와 같은 청취 방식은 최근 탈북자의 경우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이 당시 한국 가요를 듣는다는 것은 한류를 경험한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에서의 한류에 대한 인기를 북한 주민들은 알 수가 없고, 탈북 후에야 비로소 한류에 대한 감을 잡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한국 대중음악은 아이돌 노래보다는 오히려 성인가요가 더 인기가 있다.

한류라는 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90년대 후반이랑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쪽에 이제 그렇게 씨 같은 게 퍼졌잖아요. 제가 99년도나 2000년도 까지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가 한창 중국에서 한국 가수나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막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이라는 음악이었고. 저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다이어리에 연예인들 사진을 끼워 넣고 다니고, 애들이 그거를 엄청 많이 수집했어요. 다이어리 모으고 이런 거 하면서 한국 가수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 때 알았던 김희선, 보아, SES, 핑클 이런 애들이 아 여기서 누구 좋다 이런 식으로, 그 가수들의 노래를 가사로 적어서 외워서 같이 불러, 그 당시에는 중국에 이제 노래방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끼리 노래 부르고, 요즘에는 많이 발전돼서 그런데, 심지어는 롤러장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 한참 중국에서 많이 그랬어요, 가면 중국 애들 한족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노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정현 이런 댄스가수들의 노래가 되게 많이 나오고, 백지영의 <대쉬>같은 거, 김현정도 다 <돌려놔> 이러고 있고, 되게 강력한 비트 있는 그런 노래. (중략).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 접하면서 애들이 막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저도 같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선망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고... (김영진).

한류도 급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별로 나이별로 문화가 있고, 우리 때는 트로트가 유행이었고, 옛날 영화들 저희 시대 때 한창, <장군의 아들>, <투캅스> 나오고, 막 그 <뽕> 시리즈도 나오고 할 때거든요 그 때(김수혁).

고향이 또 회령이라고 국경지역 앞 쪽이니까, (중국 방송) 통신이 잡히니까 TV 많이 보고, 선명해요 화면도. 제가 그때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6],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고 엄청 충격이었어요. 일단은 내용보다도 사람들이 입는 옷 같은 거 너무 세련되고, 신사적으로 입고,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여자가 담배 피는 거 처음 봤어요. 남자는 장동건씨, 장동건씨 진짜 멋있고요. 키 큰 사람 처음 봤어요. 북한 남자는 커봤자 173,4쪽이거든요. 장동건씨는 183~4. 또 젠틀하게 있잖아요. 화를 잘 내지 않고(김수혁).

김영진은 아이돌 음악을 재중탈북자 시절에 알게 됐고, 북한에서 드라마 한류를 경험하는 경우는 김수혁처럼 북중간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국의 방송 전파를 수신할 때다.

한편, 한국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 등에 관한 공유는 VTR 테이프를 복사하여 매매 혹은 교환을 통해서 이뤄진다. 다음은 그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김수혁: VTR 테이프 하나 새로 들어오면 복사해가지고 팔고 그랬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에 다 (복사) 안 해요. 한 40분짜리면 30분, 20분만 하고 주거든요. 더 보고 싶지 또...

최영훈: 끊어가지고 1부, 2부 하는 거야?

김수혁: 일부로 끊어가지고 하는데...

최영훈: 그거 가장 많이 하는 게 회령이랑 나진 선봉에서 그걸 많이 복제하고 이래서 다른 데로 막 청진 이런 데로 (팔고)...

최길영: 중국에서 컴퓨터 들어오면 그걸로 다 복사하지 않나.

김수혁: 컴퓨터로 하지 않고, '녹산기'라고 해가지고. 녹산기로 했죠. 카세트 놓고 복사하는 거...

최영훈: 늘어나면 안 된다. 이이이잉~

김영진: 녹산기는 녹화기 같은 거고, 비디오에요. 녹화하고 상영하는 그런 거를 녹산기라고 하죠.

최길영: CD가 아니고 테잎으로?

최영훈: 그러니까 검은 테잎. 그거 늘어나면 안 돼. 중요한 장면에서 늘어나면 얼마나 답답한데 보다가. 왜 한국 꺼는 사랑, 노래도 드라마도 거의 사

6) MBC에서 2000년 4월부터 방송된 수목드라마로 매우 높은 시청률을 보이면서 대중적 성공을 거뒀다. 장동건, 김소연, 한재석, 채림 등이 출연했다.

랑, 북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흔하게 남발하지 않고, 그나마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춘향이랑 몽룡이 나오는 “사랑 사랑 사랑아~” 이거밖에 저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한국은 사랑에만 집중되고.

김수혁: 그러고 고부갈등인가 그거 좀 심하다고.

2000년 전후로 탈북한 경우는 위의 내용처럼 VTR 재생기인 ‘녹산기’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급됐고, 테이프를 복사하여 장사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2) 2005년 이후 탈북

2000년대 후반기에 탈북한 청소년들의 경우, 중국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졌다. 그래서 재중 시절 보고 듣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들은 적어졌다. 오히려 북한에서 외부 정보의 유입이나 한국 드라마나 대중가요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지금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바로 3개월 4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온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 북한에서의 생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한국문화를 북한에서 별로 접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이미숙).

국경 지역에서 살았던 이혁렬의 경우는 중국에서 월경하는 방송 전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 방송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탈북 시기와 상관없이 국경 지역 거주민에게 발견되는 특징이다. 물론 북한 주민은 자신의 TV가 있어도, TV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북한은 월경하는 한국이나 중국 방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힘든 여건 때문에 각 가정의 TV 수신기의 채널을 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채널을 바꾸는 시도들이 일반 가정에서 시도되고 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두만강 바로 옆이니깐 중국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방송) 신호가 가끔씩 조금 잡히거든요. 한국 드라마 자주 봐요. 중국(방송)에서 뭐 저녁때 되면 하는 한국드라마 있잖아요. 그럼 항상 느끼죠.

한국가면 우리도 저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이혁렬).

이혁렬은 중국 방송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집에서 시청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드라마 속 풍경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처음부터 중국 방송의 드라마 속 풍경이 한국 사회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딱 봤을 때 한국이 남조선이란 그런 생각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니깐 차츰 알게 된 거죠. 남조선이라 생각하면 미국 사람 득실득실하고 맨 이런 사람들만 사는 나라인줄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이혁렬).

한국을 미국이 도와서, 미국 나쁜 놈들이 와서 이렇게 한반도를 갈라 놨다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남한이 미국을 등에 업고 나쁜 짓을 한다고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남한 사람의 이미지는 미국사람, 미국놈들 앞잡이라고 생각했어요(최진철).

(남한은) 아주 못살고 있고.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에 대한 영상 그런 거 나오거든요. 탱크가 기어 다니고(이수혁, 이혁렬).

북한의 선전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은 남조선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이 남조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한국이 남조선이라는 것, 남조선이 북한 선전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고쳐간다. 그리고 영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험을 무릅쓰고 보는 경우가 늘어난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이에요. <장군의 아들>을 처음 봤어요. 저런 영화도 있구나. 그냥 우리는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이 싸우는 거 그게 재미있어서 처음에 자주 봤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를 본다는 건 정말 감옥 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볼 수 있나요. 그냥 (한국 영화라는 것을) 알고 보는 거지(최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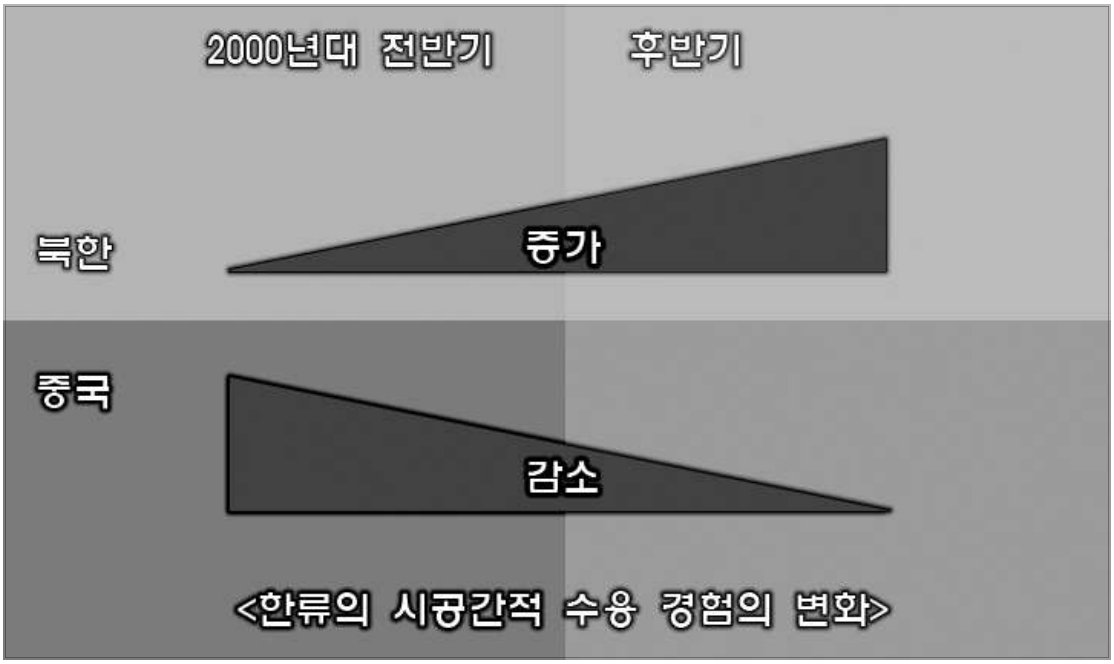
아버지랑 보죠. 아버지는 별말씀 안하시고, 뉴스 보고. 아버지는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간혹 아버지가 한번 틀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있을 때만 트는 거죠. 제가 다 풀어서 틀었다가 보고 나서 다시 구조물을 해서 놓거든요. 주로 방송 잡아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일주일 내내 볼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스무 번, 20일...(이수혁).

북한에서 일주일 만에 태국에 왔거든요. 태국에서는 한 달 반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 와서 <대물>을 봤어요. 고현정이 봤어요... "아~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막 이러면서요. "아~ 저런데서 살고 싶다" 너무 환상까지 두진 않았는데 저런데 가서 살고 싶다. 사람 한번 태어났으면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들죠(김솔희).

저도 중국에 하루 만에 그날에 돌아서서 태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태국에 도착해서 거기서 <아이리스> 보다가... <포도밭 사나이> 그런 거랑 태국에서 많이 봤거든요(오민희).

대체로 2005년 이후 탈북자는 북한에서 한국 콘텐츠를 보거나, 짧은 기간 중국이나 태국에서 접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 1>은 탈북 시기에 따라서 한류 콘텐츠 수용 공간, 즉 북한과 중국에서의 수용 경험의 정도와 그 변화의 추세를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그림 3> 한류의 시공간적 수용 경험의 변화

2000년대 전반기에 탈북한 경우는 주로 북한보다는 중국에 불법 체류 중 한류 콘텐츠를 시청할 기회가 더 많았고, 후자의 경우는 주로 북한에서 한류 콘텐츠를 경험했다. 이런 차이를 발생시킨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한류 콘텐츠의 유통 환경에서의 오는 차이 때문이다. 즉, 2000년대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한류 콘텐츠의 북한 내 유입이 활발해졌고, 아울러 한류 콘텐츠의 종류와 유통 범위 그리고 유통 속도 등에서 차이를 유발시켰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한류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늘었다.

둘째는 탈북자의 재중 체류 기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탈국경의 이동 양상에서의 변화 때문이다. 탈북자 인권 문제 등이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중국은 국경 감시와 함께 중국 내 탈북자 검문을 강화해왔다. 한편, 이미 한국 등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잔여 가족 등을 이동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요인들이 재중 체류기간을 줄게 했고,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에 노출될 기회도 줄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진이라든지 회령 소위 말하는 무역이 흥하고, 나진, 선봉 이런 식으로

오픈된 지역 외에는... 나머지 지역은 (영상 매체를) 가져와봐야 기계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고. 평양권 외에 애들은 청진이나 회령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이 몰래 들어온 것을 보고 어느 집 가서 몰려가서 같이 보고 그런 정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큰 거죠, 지역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도로라든지 통신의 발달 때문에 지역 격차가 많이 줄었다면 북한은 이동의 자유도 없고, 어떤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문화적인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 아이들이고 탈출시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것을 흡수하는 수용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박상영).

이 연구에서 탈북 시기에 따라서 한류 콘텐츠의 수용 양상과 그것이 미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출신지역의 특징, 예컨대 중국이나 한국 어느 쪽 국경 지역에 거주했는지, 도시에 거주했는지 혹은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경제적 지위나 조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성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등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대중문화를 직접 접촉한 경험에 대해서는 대체로 2005년 이후의 탈북자들에게서 더 빈번히 발견된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부 정보들은 CD나 DVD 같은 이른바 '알판'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매체에 의해서 확산될 뿐만 아니라 단파 혹은 중파 라디오, 그리고 TV 등을 통해서 한국의 대북 방송 등이 직접 전달되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는 핸드폰이 하나의 정보 채널로 기능하기도 한다. 강원도나 함경도 해안가 지역, 황해도 지역 등에서는 한국 TV 방송을 직접 수신해 보기도 하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방송을 통해서 한국 방송을 보기도 한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한번 본 게 TV로 한국 연극을 봤어요. 한국 장내파가 너무 세니까 우리나라 장내파가 너무 약하니까 한국 장내파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TV에서 잡히는 거에요. 연극 봤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에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고 그냥 알긴 했지만, 말이 서로 다른지 알았어요. 한민족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연극을 봤을 때는 한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되니까. 근데 생각 없이 주말에 TV보다가 채널을 넘기다 그게 나온 거에요. 그냥 호기심에 본거에요. 말을 듣고 놀랬어요. 처음에 다른 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 같은 거에요(김희주).

함경북도 청진, 거기는 대북방송 많이 듣죠. 일반사람들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한국라디오 다 사용하죠. 저는 별로 그런데 관심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국방송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다에서 한국 날씨는 젤 정확하대요. 그래서 (어업 종사자들이) 한국방송 듣는대요(김솔희).

국경 해안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남한에서 보내지는 기상 방송을 통해서 어부들이 어업에 참고하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이와 달리 조금 특수한 경우로서 아래 이수혁의 한국 방송 수용은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수용으로 진행됐다.

2007년도 아마 4월 달부터 보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2년을 봤거든요. 개성 집에서요. TV로요. 제가 우체국 다녔었거든요. 우체국 다니면 거기서 중계를, 북한 중계를 쏴줘요. 받아가지고 평양에 쏘는 거 받아가지고, 또 개성은 개성 중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성중계라는 게 평양에서 쏘는데 평양 거가 있고 개성 거가 있고 개성 거는 제가 쏘거든요. 그거하면서 그거는 거기 방송이고요. 북한방송이고 집에 와서는 제가 잡아가지고. 저희 TV가 히타치였는데요. 채널 고정이 안돼요. 고정은 안 되고 리모컨만 고정이 되는데 리모컨 고정이라는 게, 리모컨 뜯고 그런 게 아니라 테잎을 하나 붙여놔요. 그런데 고정도 저희가 다니면서 하거든요. 제가 고정을 하는데 집에 것도 제가 다 고정을 했다가 뜯고 그렇게 해서 하고(이수혁).

이수혁의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평양이나 대도시권에서도 일부에게만 시청 가능한 남한 방송을 이수혁은 직접 장비를 조정해 수신했다.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CD나 DVD와 같은 동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시청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채널을 고정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끔씩 중계소에 앉아서 이제 그런 거를 잡아 봐요. 어느 집이 그렇게 하는지 단속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서 잡아뗐죠. 그 사람들 저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몰래몰래 다 몰래보죠. 계급이 높은 사람. 약한

사람은 안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더 앉아서 보죠.

중국 것만 잡히는데, 그게 정말 비싼 건 한국 게 잡혀요. 라디오가 돌리는 게... 아무튼 비싼 건 딱 잡혀요 한국 거가. 저는 뭐 어느 분. 무슨 노래 나오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고. 저는 말이 재밌더라구요, 한국말이. 한국말이 북에 있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그 말을 따라하고 따라하다가 얻어맞고. 참 신기한 게 한국말하다 붙잡혀서 안전병에게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안전병은 한국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평소 아나운서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 비슷한 거. 드라마를 보는데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막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하다보면 안전병이 단속해요. 그런데 안전병이 어떻게 그게 한국말인지 아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단속 하더라구요(최진철).

계급이 높을수록 한국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할 기회를 갖는다는 증언, 감시자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제어와 통제가 가능한 부분에서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 이는 간부급 가족들이 한류 콘텐츠를 많이 시청한다는 기존이 보고서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한국 가요와 드라마, 영화, 뉴스 등에 대한 장르별 수용의 양상이다.

2) 한국 대중음악의 수용 양상

탈북 시기를 고려할 때, 수용 공간에 따른 한국 대중음악의 수용에서 이른바 '유행의 지연'을 발견하게 된다. 즉, 최근 시점에 가까울수록 북한 내부의 한류 콘텐츠들은 다양하고 폭넓게 확산되지만, 적어도 대중가요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한물간' 콘텐츠들이 북한 내부에서 여전히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적어도 대도시가 아닌 함경도와 같은 다수의 탈북자들이 거주했던 공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1) 2005년 이전 탈북

북한에서는 저도 트로트를 그냥 많이 들었었고, 가사를 들으면서 "아~ 정말 사랑도 애절하게 하는구나." 그때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후반기 사이였거

든요, 남한 노래 들을 때가, 그러니까 사랑도 남한에서는 애절하게 하고 정말 예쁘게 하는 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러고 북한은 또 노래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사랑 뭐 이런, 어머니 어버이 사랑이라고 해도 다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연관시켜서 하거든요, 그런데 남한에 사랑이라고 하면 정말 남녀 간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여서 아 진짜 남한에 대한 그런 연예에 대한 환상이 컸죠(김민영).

저는 북한에서 처음 들었던 한국 노래는 주현미[7] 노래였어요. 저희 어머니 18번이 <비 내리는 영동교>였거든요. 그래서 옆집 들을까봐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저녁에 밥 먹거나 TV보다가 정전이가면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워가지고 노래 부르면,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랑 <짝사랑>, 그런 거를 들었었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들어도 그게 한국 노래인지는 몰랐죠. (중략).

제가 (탈북해서) 용정에 있을 때 목사님 따님이 그때가 17살이었나, 제가 13살이었나 그랬는데. 따님이 한국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그 때 HOT, SES, 핑클, 젝스키스, 베이비복스 막 나올 때 였는데, 한국 TV 나오는 집에서 비디오 테잎을 녹화해가지고 다시 집에서 녹화본을 보는 거 였어요. 그 때 뭐, HOT "아이아이아~"[8]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노래들을 저는 그 옆에서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는데 "꺅꺅~" 이러고 보는데, 계속 아빠한테 "나 한국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 봤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그 영향으로 한국 와서 또 HOT가 뭔지는 알았고, SES, 핑클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최영훈, 1999년 탈북).

회령 출신인 최영훈의 경우, 1999년 탈북 이전에는 북한에서 주로 트로트 위주의 대중음악을 접했고, 탈북 후 중국에서 최신 아이돌 음악을 접했다. 물론 최신 음악에 대해서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 언니처럼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수용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돌의 음악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는 재중탈북자의 불안정한 신분과 같은 수용 조건 때문에 실행되기 어려웠고, 아울러 북한에서

7) 가수 주현미의 대표작 〈비 내리는 영동교〉 는 1985년, <짝사랑〉 은 1989년에 발표됐다.

8) H.O.T의 1999월 4집 앨범「[Iyah!]」의 타이틀곡이 <아이야>이다. 2000년 2월 중국 북경에서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열었고, 티켓이 발매 전 90% 사전 예약이 됐고, 발매 시작 후 3일 만에 매진되는 등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었다.

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노래와 퍼포먼스 등은 일종의 문화적 충격으로서의 낯선 경험이었을 것이다.

> 노래에 랩이 들어가는 게 놀랐어요. 저게 노래냐 뭐냐 그랬어요. 중국에서 들을 때 저게 뭐야, 가사도 알아들을 수 없고, 그 때 한창 유행이 멜로디에다가 힙합 그것을 넣는 게 많았어요. 중간에 영어도 많이 넣고 하다보니까 "어, 저게 뭐지. 왜 노래에 저런 게 들어가?"하고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힙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때는 "뭐야 저게, 노래도 아니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화장 진하잖아요. 막 이정현[9]은 손톱 막 길게 해가지고,, 막 "와바와바~" 이러고 기괴한 그런 퍼포먼스 그런 것도 많이 놀랐었죠. 그래서 굉장히 나는 아 저쪽은 타락한 쪽인가. 약간 안 좋은 시선을 중국에서는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옷 짧게 입고 막 무대도 빤짝이 하고 막 (가슴) 골 내놓고, 그때 당시는 또 배꼽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막 그러고 다니고, 피어싱하고 이런 거, 되게 놀랬죠. 이정현 막 부채하고, '이~젠~' 랩이 좀 놀랐어요(김영진)

재중탈북 청소년에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이끈 아이돌 그룹의 음악은 중국 청소년들의 소비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정도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 입국한 후 아이돌 그룹의 음악들을 들었을 때 그 낯설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대중가요 속 랩이나 힙합 혹은 노출 의상과 기괴한 퍼포먼스 등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완충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2005년 이후의 탈북

2000년대 중후반 북한으로 유입되는 한국의 대중음악 음원파일이 대개 CD나 DVD와 같은 이른바 '알판' 형태로의 유통이 광범위해진다. 그리고 청소년 세대에게 그러한 디지털 매체에 수록된 한국 대중음악은 일상적으로 수용됐다.

> 북한 노래는 사상이 다 있어요. 모든 노래가 다 상관이 있어요. 누구 하나를 위한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노래를 처음 딱 들으니깐 뭔가 자유로

9) 1999년 10월에 발매된 이정현의 1집 앨범 [Let's Go My Star]의 타이틀곡 '와'는 음원 출시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긴 손톱과 부채를 활용한 퍼포먼스와 함께 테크노 여전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파격적인 무대를 보여주었다.

운 거 있잖아요. 사랑 얘기 나오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유로운 게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그게 좋죠. 저는 그래서 듣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북한 (음악)은 지루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한국 음악을) 듣게 되더라구요. 그때는 발라드가 크게 잘 안 나왔어요. 뽕짝 트로트 있잖아요. 주현미 노래, 나훈아 노래... (최진철).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뭐 CD 있잖아요. DVD나 테잎있잖아요. 그게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 거든요.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는 MP3라든가 라디오를 들고 있는 자체가 걸리는 거예요. 완전 이런 최신형 라디오 같은 거는 완전 간첩 그 정도 까지거든요(이혁렬).

한국노래는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들이 다 한국노래로 놀아요. <바위섬>[10], <잠자는 공주>[11] 이런 트로트가 많아요. 친구들끼리 한국 노래를 평상시에 부르고 같이 노래하고. 일단은 노래 같은 거는 USB나 알(CD/DVD), mp3 이런 걸로 다 나왔는데 영화 같은 건 진짜로 우리 같은 사람 못 보거든요. 그냥 조금만 더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마 몰래몰래 많이 봤을 거 같은데... 아무리 저희를 잘 알고 하는 사람도 일단 그런 걸 피하거든요(김솔희).

<해변의 여인>도 듣고, 또 <아파트>도 듣고, 뱅크의 "술에 취한 니 목소리~"[12]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단속 당하면서 들었죠. 아버지는 사상을 완전 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핫팬츠만 입고 팬티만 입고 나와서 막 춤추고. 그리고 우리 아빠 술에 취해서 "야 저게 뭐야 '볶아먹든 찢어먹든 마음 대로해'[13] 저게 뭐야, 저런 거 나쁘다 보지 말라"고 하고(오민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MP3랑 있잖아요. 그걸 아예 가지고 다녔어요. 마음대로 못들고 다니거든요.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마음대로 가지고 다녔어요. 아이돌 걸 그룹까지는 안 갔어요. 최신노래는 없

10) 1985년 발표된 김원중의 <바위섬>.

11) 2008년에 발표된 신유의 <잠자는 공주>.

12) 1995년 발표된 The Bank의 1집 곡 <가질 수 없는 너>.

13) 2005년 발표된 여성 그룹 LPG의 트로트 풍 노래 <캉캉>.

었고요. 거의 다 그런 노래, <아파트>, <찰랑찰랑>(최진철).

<바위섬>, <친구>, 캔의 “가라가라~”, 거북이 같은 거. 옛날노래들이 많았죠. 친구들한테서 받아서 보구, 드라마도 친구들한테서... (김영환).

200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들었던 김솔희와 오민희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트로트가 여전히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행의 지연’은 상당부분 해소 돼가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트로트 가수 신유의 <잠자는 공주>는 2008년에 발표된 곡이다. 그리고 LPG의 <캉캉>은 2005년에 발표된 곡이다. 김영환의 경우, <바위섬>부터 캔의 히트곡까지 다양하게 경험했다. 김희주의 경우는 최근 아이돌의 빠른 랩의 음악을 들었다. 이는 취향 상 여전히 트로트가 대세지만, 수입곡은 옛 노래부터 최근 노래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장윤정의 트로트, 이런 거를 북한 식으로 편하게 따라하고, 북한에 가수들이 하는 풍으로. 그게 또 잘 맞아떨어지고. 그런 노래를 하는 애들이 있고, 이승철의 노래를 하는 애들이 있고. 우리 일제 시대에 나왔던 노래를 내가 들려주면서 이런 것도 너희들은 혹시 알아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지요. 얘네들 문화가 노래를 기준으로 하면 진짜 몇 십 년 사이의 노래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이준호).

하나원의 비상근 교사인 이준호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대중가요의 다양성에 놀라기도 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요와 최근 노래까지를 탈북청소년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했던 것이다.

한편,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트로트만큼 즐겨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밖에 두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돌 그룹의 춤은 음악적 취향과 무관하게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아이돌들 노래가 보컬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는 거에요. 일본말을 하는지 중국말을 하는지, 전혀...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고 첨엔 그랬어요. 근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들으면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국이 되게 많이 서양식으로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김희

주).

저희 가수라면 이렇게 사람이 한명씩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걸 그룹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건 여기 와서 알았고 거기 있을 때는 뭐 가수들이 이렇게 한명씩 나와서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는 그런 게 있고 춤출 때 무용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몇 명이 나와서 하는데요. 저게 무슨 걸 그룹이다 그런 걸 모르구요(이혁렬).

춤이요 춤은 그걸(한국 아이돌 춤을) 모방해서 배웠어요. 요즘 저희 올 때가 한창 이렇게 댄스... 강사가 있어요. 몰래 하는데 완전 막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돈 주고 배우는, 북한노래 틀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다 한국 춤이었어요(오민희).

(아이돌 의상도 모방해서) 다 그렇게 하고 다니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하고. 춤도 친구끼리 한국 춤, MP3 틀어놓고 놀죠. 청진 쪽에는 애들이 되게 깨었고요 막 그래요(김솔희).

양강도 농촌 출신인 오민희의 경우는 춤을 따라했지만 그 춤이 한국 아이돌의 춤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아이돌의 의상이나 패션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반면에 청진에 살았던 김솔희의 경우는 친구들끼리 아이돌 그룹의 음악에 맞춰 춤을 따라하거나 심지어 아이돌 가수들의 의상을 따라 입으려는 시도도 있다고 했다. 산골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한국 대중음악과 춤을 인지한 후 청소년 집단 내에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걔네는 우리 (한국) 뮤직비디오 보여주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 의외로 상당히 좋아해요. 우리 애들은 춤추는 아이돌 이런 걸 좋아하지만, 걔네는 그런 가슴 찡한 걸 좋아해(이준호).

하나원에서 탈북청소년을 지켜봐온 이준호는 탈북청소년들의 음악적 취향에서 노래 가사나 그에 맞게 각색된 뮤직비디오를 특별히 선호한다고 지적한다. 노래의 음정이나 리듬도 중요하겠지만, 노랫말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태도는 보인다는 것이다.

> 탈북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사 보면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상당히 많아. 우리 애들 문화는 사랑에서 상당히 벗어난 희한한 것들 많잖아요. 친구들이 싸우는 거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걔네는 아직도 사랑이라는 게.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 했더니 장기자랑이라고 해서 내가 보거든요. 엄마 나오는 노래를 하는 게 칠십 프로 이상.

노래의 내용으로 연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모곡과 같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추억 등이 담긴 가사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은 탈북청소년의 특수한 상황과도 연계돼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로 진입하기 전까지 탈북청소년에게서 보이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선호 유형과 수용의 양상은 북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나 탈북청소년 개개인의 상황 등과 연계되고, 그것이 노래말 등으로 표현되는 가요들에 대해서 특히 선호적 수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 진입한 후 탈북청소년의 음악적 취향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한국적 상황에 적응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 성인가요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제일 처음에 온 친구들은 처음에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빠른 비트의 음악은 1년 지나고 나면 여기 있는 또래 젊은이와 비슷하게 좋아해서 다 잘 듣더라고요.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은 트로트라든지 옛날 가요들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자기
>
> MP3 같은 데서 잘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똑같은 또래 젊은이들처럼 텔레비전에서 인기 많은 아이돌그룹을 쫓아가면서 좋아하고,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온지 1년, 2년 정도 된 친구들은 현재 아이돌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 노래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재미없고 안하고, 어차피 알지 못하니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쫓아가는 거고(이미숙).

이미숙의 언급처럼, 탈북청소년의 음악적 취향은 성인가요에서 점차 한국에서의 정착 기간이 늘면서 아이돌 그룹의 음악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드라마의 수용과 환상적 기대

FGI와 전문가 인터뷰 조사에서 한국 드라마 수용이 탈북 동기 및 한국 사회 적응에 어는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가면 드라마 속 풍경의 어디에선가 살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한국 드라마 수용 경험이 많을수록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량 탈북 현상의 초기부터 최근까지 중국이나 북한 등 어디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이런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들의 역학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예컨대 수용 시기와 공간, 수용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탈북 초기와 달리 한국 사회의 탈북자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들에 관한 정보도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러한 환상적 기대는 견제되기도 한다.

(1) 2005년 이전 탈북

> 드라마랑 영화가 생활인줄 아는 건 있어요. 중국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거(한국 드라마나 영화)니까, 저희가 또 얘기를 듣는다 해도 그건 한계가 있고. TV같은 경우는 영상까지 가미 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꿈 꾼 한국생활이 저 TV 속에 생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보면 그게 갭이 있잖아요, 현실이랑(김영진).

> 가을동화를 북한에서 봤었어요. 제가 2002년에 한국에 왔는데, 2001년도 후반쯤에 아마 봤던 거 같아요.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는 옷 같은 거를 보고 있죠. 눈이 그쪽으로 가니까 폰 같은걸 보고, 옷 같은 걸 보지, 스토리는 나중에 보잖아요. 그것도 자주 봐야 스토리가 이해가 되지. 처음에 보는 거는 시각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 대사보다도 사람들 입고나오는 옷이나, 너무 예쁘잖아요. 송혜교나 원빈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진짜 꽃미남. 그러니까 그때는 꽃미남이라는 말도 모르고 보면서 북한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역할에 나오는 배우가 진짜 잘 생겼어요. 그런데 말투가 살짝 남한 말투여가지고, 그 사람 말투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잭포라고 하잖아요 재일교포를 잭포라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억양이나 이런 걸 따라하고. 아무튼 그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원빈으로 비꼈죠. 그거보고 남한에 가면은 진짜 원빈 같

은 사람만 있을 것 같고, 송혜교 같은 여자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그때 또 하얀 옷 입고 1, 2층으로 된 집에서 여자가 막 "여보~"하면서 가방 들어주는 거 그런 거 보고. 남한가면 여자가 다 저렇게 일만 안하면, 저런 거만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엄마가 처음에 남한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호응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노래나 영화를 보면서 많이 익숙해지고 환상이 많이 컸던 거 같아요. 저도 환상이 깨진 건 아닌데, 그냥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겉 같아요(김민영).

탈북 동기 혹은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환상적 기대는 탈북 시기보다는 드라마에 대한 노출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소문 등이 무성하지만, 영상 이미지가 제공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 2005년 이후 탈북

2007년 제가 20살 때 <쩐의 전쟁>을 봤는데, 그때 말이 좀 이상했어요. 외국 꺼는 많이 보지만 한국 꺼는 그때 처음 봤어요. "(남한의) 현실이 그런가" 그런 것도 조금 궁금증이 나고, 실제로 (남한을) 보고 싶은 생각, 그런 게 좀...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완전히 조금 다르다. TV에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생각을 너무 크게 했었나봐요. 실제로 왔는데 그게 아니다 해서 조금 허무한 생각도 들고. 처음에 그거 보고 생각했던 거하고 TV하고, 현실 생활하고는 다르다는 것, 북한도 다르지만...(이수혁).

(드라마 <쩐의 전쟁>을) 처음 봤을 때 뭐 거기 사람들은 집도 화려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 아~ 한국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했거든요(이혁렬).

<유리 구두>라는 거 그런 거 보니깐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최진철).

(한국 드라마는) 삼각관계 잘 만들어지잖아요. 드라마 잘 만들잖아요. 그

삼각관계에 빠져가지고 연애하는 거 그런 거보고 미쳐가지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여기(북한)는 드라마를 쓰기에 적절한 걸 (여기 체제에 맞는 걸) 만들잖아요. 사회생활 보여주면서 배우가... 그런데 그렇게 삼각관계가 (현실에) 널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이한 그런 걸 드라마로 만든 거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그 뭐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애절한 표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힘든 표현 그런 거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마음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딱 보게 되면 주구장창 앉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가든지 말든지(최진철).

이게 한국이 맞나.. 한국은 그냥 집도 그렇게 다 드라마 보면 야다가 쫙 깔려 있고 멋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집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내렸는데 그냥 중국 어느 골목에 와있는 거 같고 아무 느낌이 없더라구요(최진철).

저는 중국영화 러시아 영화 정복자였어요. 인도영화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이 보고 한국영화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알'이 없으니까. (북한을 떠나게 된 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 지금의 사는 만큼 잘 살아보겠다고 비교한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비교한 거죠. 한국을 못 봤으니까. "나 중국에 가서 이만큼 살겠다" 그러고 왔죠. 근데 저 올 때는 한국을 목표하고는 왔어요. 아는 친구네 엄마가 한국에 오라고 해가지고... 올 때부터 그런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가면 혼자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마는 드라마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저게 영화니까 저러지 실제로는 저러지 않다. 그러거든요. 근데 잠깐 착각하는 사람들은 막 드라마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걸. 어떻게. 처음 엔요, 막 다 가면 잘 살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 새가 없었어요. 그냥 난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만큼 살지, 얼마나 벌어야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김솔희).

저도 태국에서 한 달반 정도 있었어요. <아이리스>나 이런 거를 거기 한국 대사관, 한국 사람들 있는데서 볼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말을 금방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말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언니들보고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리고 영화 볼 때도 막 진짜 그렇게 멋있고 하니까 저도 상승되는 거예요. 한 삼일 지나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조금씩. 처음엔 진짜 뭐라고 하는지 무슨 단어들만 하나하나씩 들리던 게 삼일 지나니까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 들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천연지애>라는 드라마 봤거든요. 영화는 못 본 거 같아요. 그냥 드라마들만 <천연지애>라는 드라마도 막 환상적인 영화 같고. 거기서부터 드라마 봤으니까 여기서 말도 조금 이렇게 알았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노래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한국 노래도 좀 알아듣고. <아이리스>에서 나온 노래 좋잖아요(오민희).

그냥 드라마 보는 게 그때(북한에 있었을 때)는 환상에 젖어서 봤지만 지금은 드라마 보다 "아~ 그냥 나도 저런 사랑이나 봤으면..."(최진철).

드라마보면 한국 드라마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이 되게 멋있잖아요, 크고. 젤 처음에 올 때는 뭐랄까 환상적으로, 거기 사람들은 다 잘살고 집이 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김영환).

한류 콘텐츠의 유입뿐만 아리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형성에서 환상적 기대를 갖게 만드는 인적 맥락들이 있다.

한국이 잘사는 거를 드라마를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중국에 오면 대부분 한국인 선교사들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 부유하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같이 오는 물건이나 목걸이 보면, 구경도 못하고 먹어도 못 본 진짜 너무 맛있고, 너무 멋있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그 중에 일부분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접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는 물론 한국에 생활 이런 거도 알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 드라마가 한국생활 그대로구나... (중략). (중국 조선족)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가고 이런 거 때문에 친구들이 엄마 한국에 돈 벌러 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고,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애가 한국친구가 있는데 이러면 되게 우월감을 느끼겠죠. 지인이 한국인이다 이러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니까, 굉장히 선진국이고 잘사는 나라고 우리보다 모든 게 발전되고 그런 데에

내가 어떻게든 나랑 연관성을 가진다는 데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거 보면서 직접적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런 거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우월하고...(김영진).

북한 주민에게는 탈북 주민들이 그 역할을 했고, 재중탈북자에게는 한국 선교사나 한국에서 돈을 벌기위해서 가는 조선족들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풍요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탈북 현상의 초기에는 한국에서의 탈북자의 삶에 대한 경험들이 북한 주민 혹은 재중탈북자에게 확산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노출이 비록 적더라도 막연한 기대라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점차 한국 드라마 속 풍요가 탈북자를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다시 탈남하는 탈북자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드라마의 영향력은 감소된다. 반면에 북한 사회에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드라마 콘텐츠의 종류와 양이 늘고, 북한 전지역에서 수용이 가능해질 정도로 확산되면서 드라마의 영향력은 증대된다. 즉, 감소 요인과 증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드라마보면 재밌고. 멋있다 그렇게 봤어요. 한국말은 알아들으니까 뜻은 알고.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 환상적으로... 그렇다고 드라마 보고 영향받아온 것은 아니고 그것보고 환상 탁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일단 아빠가 전화로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말 듣구요, 그리고 여기 오면 아빠 말 만 듣고, 드라마에선 크게 영향 받은 건 없고(김영환).

이러한 환상적 기대의 증가가 탈북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량난과 경제난에 의한 생계 위협에서 점차 삶의 질 향상으로 탈북 동기가 변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먼저 한국에 온 탈북자가 잔여 가족을 이동시키는 것이 탈북 동기의 보다 직접적 요인일 수 있지만, 잔여 가족이 한국에 오는 경우에도 환상적 기대는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잔여 가족의 탈북을 설득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이미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선험적으로 관찰한 상태에서 그러한 이동의 계기는 보다 쉽게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결정적인 동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동의 과정에서 일종의 환상을 꾸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근데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왔는데, 대개, 와서 한국 사회에 대해 잘 이해 못하고 있을 때는 애들에 대한 기대치도 많고 꿈도 많고. 그런데 나가면 막상 좌절하고 힘에 부쳐하고.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최영숙).

한국 드라마 수용에 따른 문화적 환상은 한국 사회의 현실 인식에는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정보적 차원에서 남한 주민의 삶의 모습이나 다양한 풍경 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현실에서 탈북자로서 혹은 한국 사회의 하위 계층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서는 허황된 기대에 대한 실망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반대로 말하면,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이 커지는 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환상 혹은 기대를 갖게 됐다는 것이고, 눈으로 직접 한국에서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러한 환상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계기로 보인다.

한편,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모습을 두고 한국 사회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야기의 구조나 등장인물의 캐릭터 성격이 북한과 다르게 구성되는 점은 탈북시기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제기하는 부분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보통의 상업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권선징악과 같은 문화적 코드가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신화(Campbell) 혹은 민담(Propp)에 관한 분석을 보면, 선과 악의 대결은 구조적인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에서 '악'의 존재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속 '악'의 존재는 캐릭터의 성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 영화 속이나 그런 거 보면서 문화차이 그런 것 느꼈던 것 여전히 세고, 한국 영화는 악역이 항상 이제 구체화되고 집중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주연이 악역이랑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역할도 있지만 악역의 역할의 비중도 크고 그러잖아요. 북한도 있긴 있지만 모든 영화마다 다 있진 않아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거마다 다 있지 않은데, 한국 거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 전개가 되니까 북한 거는 설령 있다 해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지 않아요. (한국 거는) 악역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상상 못했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놀랐던 게, 여자들이 질투 느끼고, 직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막 이간질,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정말 한국여자들 무섭구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왜곡 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게, 영어가 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무서

웠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중국 드라마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방영을 한 거예요. 만날 기다려서 그거 본거예요, 중국 말 잘못하니까(김영진).

채림이랑 뭐 김소연인가 둘이 나오는데 있잖아요. 아나운서 되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방송국이라는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와서 보면 기본적인 이해나 그런 게 바탕이 되서 보겠지만, 그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막 그런 진짜 너무 놀람, 이 사람 떨어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꾸미는 악행들, 그런 거 보면서 한국 여자들 너무 무서운 거야. 한국 여자들 정말 독하다. 또 남자관계에 있어서 질투가 엄청 심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죠(최영훈).

북한에서는 악역이 있다 해도, 그런 여자들의 악행보다는 예를 들면, 악역이 있지만, 어떤 남자였고 그렇게 구체적이 되고 악행이 엄청 치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보게 된 북한 영화는 거기 악역이 굳이, 여기서 말한 악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거 없이도 진행이 되는 게, 진행이 되는 게, 여기서는 재미를 위해 이러지만, 북한은 선전을 위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뭐 체제의 우월성 이러다보니까 악행보다는 약간 주체사상에서 약간 어긋났다가 돌아오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해서 결국 풀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사랑이, 이제 그 영화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상대를 해하고 이런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김영진).

선과 악의 대결 구도와 악인의 구체적인 행동 묘사 등이 종종 탈북자에게는 충격을 주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기껏해야 '돌아온 탕자'와 같은 악인이 주류를 차지한다. 처음에는 잘못하다가 반성하고 당의 방침에 따르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한편, 한국 영화계에서 한때 유행이었고, 지금도 지속되는 이른바 '조폭 영화'에 대한 경험은 북한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영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접한 영화가 중국에 많이 나가있는 영화가 건달들 깡패들 이런 영화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사회가 되게 폭력적이고 칼 이런 게, 일상생활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알았거든요. 실제로

한국 와보니까 그거는 진짜 영화 속에 쉽지 않잖아요. 가끔가다 조폭관련 뉴스를 보면 아 있긴 있나보다. 그런데 우리는 끼지 않는 그런 거니까. 여기 왔을 때 저도 청소년기였고, 공부하면서 그런 거 잘 몰랐지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아~ 북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전달 될 수 있겠구나” (김영진).

영화랑 드라마랑 깡패랑 양아치 많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도 별로, 그런 건 아직 한 번 도 못봤구요(김영환).

탈북 시기가 다른 김영진과 김영환은 한국 영화를 보면서 조폭이나 깡패 집단을 알게 됐고, 한국 사회에 그러한 집단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다. 이는 탈북 시기와 상관없이 북한 사회에 미처 전달되지 못한 한국 사회의 모습의 경우에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탈북자와 밀접히 관련된 삶의 정보는 북한 사회로 전달되어 드라마나 영화 속의 모습에 관한 왜곡이 견제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여과장치 없이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드라마의 다른 등장인물이나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남자 출연자의 외모 역시 북한의 콘텐츠 속 등장인물들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른바 ‘마마보이’와 같은 남자 등장인물 유형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진다.

(장발) 저런 건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남자가 머리를 기르지 라는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 컸던 거 같아요. 그러고 꽃남방 입고 나와도 남자들이 뭔가 핑크색, 아무튼 색 있는 옷 입고 나온다는 거 자체가 남자 안답게, 남자가 뭐 저런 걸 입고 다니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드라마를 많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놀랐죠. 처음에 와이셔츠를 입어도 단추 몇 개 풀고 탁 입는 것도 섹시하기는 한데, 뭔가... 그러고 청바지도 찢어진 거... (최영훈).

최영훈: 마마보이, 북한은 그런 게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없는 거 같아요.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그런 게 나타나는데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어, 진짜 저런 게 있나? 난 저런데 (시집) 가지 말아

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

김수혁 : 그런데 북한은 대부분 군대를 오래갔다오잖아. 오래 갔다오니까 그런게 좀...

김민영: 원래 북한은 엄마들이 막 키우니까.

최영훈: 선생님한테 애 미래를 맡기고, 애들 자체가 졸업할 때가 되면 부류가 나뉘어요. 군대 갈 아이들, 농장 갈 아이들, 공장 갈 아이들. 나라에서 그 직업을 딱 정해주니까 부모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없죠. 오히려 여자들은 그냥 시집이나 잘 가라.

북한 사람들이 영화나 그런 문화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북한에서는 그 내용이 짜여진 내용이고 우리가 평범하게 얘기하는 일상생활,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저거는 우리 주변에 없는 일이에요. 평양의 이야기지. 평양의 사람들은 우리얘기라고 하겠지만. 한국영화 드라마를 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영화 속) 말을 보면 그게 있잖아요. 사투리 나오잖아요. 아 저런 말도 있구나. 북한은 다 평양말만 쓰니까. 북한에서 드라마 보면서도 우리 얘기다 이런 생각을 안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드라마 볼 때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에 신선함을 느끼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김영진).

드라마 내용 상 가장 큰 차이는 주체사상 등을 심어주려는 도구적 기능으로서의 북한 드라마가 있다면, 한국 드라마는 사상성보다는 일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가 주는 즐거움의 요소를 다르게 인식하기도 한다.

당을 위해 일한다. 오늘도 무슨 성과지표 하나를 보냈다 이런 내용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주변에 들은 게 있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내용에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한국드라마에 재미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에 그냥 평범한 생활을 담았다는 거, 누구나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거,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인데, 거기는 하찮은 사람이 없거든요. 다 국가를 위한 얘기, 늘 학교에서 배웠던 사상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니까. 이게 어느 나이 돼서 그러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내 이야기다 주변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는 아니죠(김영진).

> 그 사람들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체제 선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학교에서 받는 영향 그게 다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나라는 사람이 국가의 한 이념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영향은 받지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인간으로 좀 발전된 선진적인 국가의 인간이랑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의도한 영향이지(김민영).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의 그것과 달리 비정치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나 탈북청소년에게 소구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 사회로 전달되지 않는 많은 정보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한국적 모습에 대한 왜곡된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탈북 시기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국 방송의 수용과 탈북 동기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많을수록 탈북청소년의 탈북 동기에서 환상적 기대는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소식 등의 정보는 그러한 기대가 부풀려지는 것을 견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견제 장치들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환상적 기대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 부모가 데리고 오던 뭘 하던. 어쨌든 아무 생각 없다가 바로 오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야겠다고 느낀다던지 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뭐를 한다든지(이준호).

탈북은 다양한 동기들에 의해서 발생된다. 최근 탈북 동기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이미 한국에서 자리 잡은 부모가 브로커를 통해서 자식을 데려오는 탈북이다. 그러나 이때도 이준호의 언급처럼, 그때부터라도 내가 갈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 중 일부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한국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과 그 효과를 탈북의 직접적인 동기라기보다는 보조적 동기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탈북청소년들의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서 대체로 수렴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탈북 청소년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수용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박상영 교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적어도 제가 10년 넘게 만났던 애들 중에서 8,90프로는 자유 찾아서 탈출도 아니고, 그거 이후로 남한에 오는 애들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일단 한 집안 단위로 봤을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맏이가, 맏아들이 되었던 맏딸이 됐던 용감하게 먼저 강을 건너가는 거죠, 나 하나라도 입을 줄이면서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게 되면 그 훈춘 뭐 연길 연변 요런 지역에 다 조선족들이 거의 조선족 자치구기 때문에 조선족들이 거의 주된 세력을 하고 있고 조선족들의 성향은 당연히 우리말을 쓰면서 북한지역에 많은 친척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강으로 건너가서 며칠이고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일을 해주고, 식량을 좀 얻어온다든지. 조금 더 용감한 애들은 이제 시장 같은데 가서 소위 말하는 꽃제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인제 그 돈을 가지고 도강을 해요. 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들. 그걸 이제 몇 차례 하다보면 중간에 걸려서 매도 맞고, 와보니까 누구하나 죽어있고 굶어 죽어있고 이러면서 점점 중국에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 이제 2주 3주 그 체류하면서 중국에서 TV를 통해서 남한에 사회에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한류가 크기 때문에 한류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늘상 방영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북한에서 들었던 남조선은 뭐 굉장히 비참하고, 어 이게 아니다 이거야 자신들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중국인데,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야 어쨌든 얘네 들이 봤을 땐 드라마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쇼프로프로그램 같은 거 보게 되면 한 수 위 같은걸 접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들이 남한으로 결정하는데 한국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결정적. 와서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이전에 한국행을 결정하는데 소위 말하는 한류의 문화들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탈출 동기도 이미 그 그리워하는 것이나 자유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에 공허함을 좀 더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10대 전후로 해서 보통 이제 엄마들이 보따리 장사로 중국을 가요. 그러면 이게 한두 달

이나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하면, 이제는 10살 정도 밖에 안 되었던 애들이 집안 살림을 다 해요. 병든 아버지 수발을 들고 집안을 가꾸고 채소를 가꿔서 장마장에 가서 팔아서 그 돈으로 6개월, 1년은 거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 못 견디니까 그다음에 엄마 체류로 중국의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 엄마들은 대부분 팔려가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왜 농촌 같은데 보면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한족에 부인으로 이제 되면서 그 아이를 낳고 잡혀가지고 왜냐면 다 감시하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애 하나 나주고 느슨해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식들에게 연락, 살만해지니까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거죠. 다시 중국에, 북조선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못 살겠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데. 어른이나 아이나 중국에서 만났던 뭐 북한에서도 많이 봐요. 최근에는 2-3년 전에는 얘기 들어보면 청진이나 이제 좀 개방적인 도시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두만강 가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지만 청진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고 항구도시나 몇몇 중요한 북한의 도시들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유입 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몰래 들어온 어떤 비디오나 뭐 이런 테이프를 통해가지고 한국에 드라마라든지 영화, 쇼프로그램 이런 음악들을 접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미국갈래 남한갈래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미국을 선택할 것 같은데, 남조선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는 영어도 안 되고 또 자기네 접해봤던 문화를 통해서 보면 남한에 잘 살고를 저희 같은 민족이니까 잘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남한행을 선택을 하는데 그런 한국의 문화들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에요(박상영).

저희가 사실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탈북 할 때의 동기라고 하면은 요즘이나 2005년 이후에 들어 온 사람들하고 아마 동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단체생활 할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야, 너는 왜 탈북했어, 어쩌다가 탈북했어?” 그 중에 한 친구랑 얘기하다가 걔가 나한테 너는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어. 저는 동기 부여가 딱 하나거든요. 배가 고파서. 딱 그거 하난데, 자기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는 무조건 저기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브로커를 해가지고 중국까지 와가지고 한국 왔다... (중략). 엄마,

아빠, 동생이 잠잘 때 그냥 문을 닫고 조용히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동생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후에 온 아이들은 아마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랑 좀 동기부여가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내가 저기가면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 구나. 그 생각에 무턱대고, 집을.. 그냥 엄마, 아버지도 그냥 잊게 만들 정도로 딱 문 닫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시대가 많이 변한 거 같아요. (최영훈).

한류가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게,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 같아요. 중국에 갈 생각으로 가게 되고, 중국에 있으니까 북한애들 와서 처음 (한류를 접한 뒤) 한국에 온 그게 좀 덜해졌을 거고. 만약 한류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또 달라졌겠죠(김영진).

확실한 거는요. 북한이 점차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북한 사람이 깰 수 있는 그 방향을 문화적인 게, 미디어 쪽이든 노래든 그게 굉장히 작용을 할 거라고, 저 같은 경우도 그게 굉장히 작용을 했거든요. 노래듣고 영화보고 했던 거(김민영).

중국에서 한국 TV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뉴스를 하잖아요. 뉴스를 하는데 아무튼 나도 생애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하잖아요. 저게 뭔 소리일까 하는데 듣다보니깐 "아~ 그렇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한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구요. 저는. 북한에 부모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북한에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최진철).

한국 대중문화를 접한 경험이 탈북 동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특정 계기들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북한 청소년의 탈북 동기에서의 특정 계기들이란 '북한 가정에서 부모사이의 불화', '가족 해체와 재구성 과정에서의 불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탈북', 혹은 '10년이란 세월의 오랜 군대 생활에 혐오' 등이 있을 수 있다. 하나원 교사 이준호에게는 마치 탈북청소년에게 탈

북은 국경을 넘는 ‘가출’과 같은 의미로 보였다.

> 지금 북한 애들은 다문화, 비행청소년, 탈북의 성격을 다 포함해요. 요번에 가출했단 애도 (북한에서) 새 아빠랑 싸우고 가출 했다니까. 그건 우리도 여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이잖아 솔직히. 단지 그게 국경을 넘는다는 거. 우리 (한국) 애들은 비행청소년으로 빠진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폭력을 하게 된다든지 이 개념이지. 개네도 그런 과정이 있겠죠. 물어보면 막 슬픔에 잠겨 사색에 잠겨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해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가출한 거네?’ 그러면 맞대요. 독특한 문화가 지금 그런 거에요. 탈북아이들을 상대하는 게 이제는 탈북아이들이 포커스가 아니고 비행청소년 다뤄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비행청소년을 다뤄본 사람들이 탈북자를 다루던지, 탈북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비행청소년 다루는 걸 배워서 복지 쪽을 해야... 그런 문화가 완전히 섞여있어요(이준호).

이준호는 탈북청소년의 탈북 동기가 경제적 혹은 정치적 문제 등과 같이 심각한 계기이기보다는 사춘기에 예민한 청소년들이 새아빠 혹은 새엄마, 아니면 친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가출하듯이 국경을 넘기도 하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비행청소년처럼 행동하다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이준호가 지적한 ‘군대 생활에 대한 혐오’는 아직까지 탈북청소년의 탈북 동기에 관한 보고서나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돼 오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탈북 동기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동네에 군대에서 바보 되가지고 온 사람, 다리 잘려가지고 온 사람, 머리 다쳐갖고 온 사람, 쉽게 말해서 군대 가면 배불리 먹고, 당원이 되고 이 개념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십 년이라는 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잠깐 나왔던 애들도, “아 나 지금 가면 다음 달에 군대 가야되는데, 어디 가야되는데...” 그래서 부담 없이 오는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이준호).

탈북청소년은 중국에서는 북한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동시에 신분상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

망을 갖는다. 탈북이라는 행위는 청소년들이 직면한 10년간의 군대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벗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이다.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했을 때 군대의 의미는 먹는 걱정은 덜해도 되는 상황과 직결됐다면, 최근에는 탈북청소년에게 그러한 식량난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청소년의 탈북은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때도 역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선경험은 탈북이라는 행위를 실천하게 만드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조적 기능은 탈북청소년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기대와 환상에 대한 좌절감을 크게 느끼게 만드는 데도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선경험은 한국 사회로의 진입을 촉매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다중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한류 콘텐츠의 수용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응

북한에서 혹은 중국 등 제3국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대중가요 등을 미리 경험하고 한국에 오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에 도움이 될까라는 문제가 이 연구의 핵심 주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히 드라마는 남한 사회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갖게 만들고, 탈북 동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매체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는 한국 사회의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물론 개인적 경험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류 콘텐츠의 선험적 수용을 어느 한편으로 긍부정할 수는 없다.

>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학습하면서, 사회화되면서, 알면서도 깜빡깜빡 넘어가는데 얘네 들은 그런 장치 없이 접하니까.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 때문에 부잣집이 나오고, 그래서 뭐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사실은 그게 몇 집 안 되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이 살) 거주지, 영구 임대 주택을 받잖아요. 10평도 안 되는 그거 보고, 이게 뭐냐고 안 산다고 화를 내면서 튀어나오는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애가 자기가 그랬다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서는 많이 노력해야지만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음에도 항상 그런 과정이 생략 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회에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다단계 빠지기고 하고, 허황된 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 보면 꿈도 있고 도전의식도 있는데, 중간이 생략되는 거예요. 빨리해서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결과, 과정보다는. 이게 중국에서는 체류기간이 길수록 이게 더 커요. 중국도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천박한 자본주의거든요. 우리 70년대처럼 뭐 속여서 팔듯이, 하여튼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과정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얘네 들이 1년 이상 노출돼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그러려느니, 과정 생략하고 무조건 결과만 생각하면 되는... 그러니까 얘네 들이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하고, 얘네 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말하는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도 빨리 습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때문에 나는 이제 오히려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봤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말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돼서 대학 공부도 자기 갈 길을 찾는 아이들도 봤지만, 그런 거 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 안하고 허황된 꿈만 꾸는 애들이 7:3 정도로 많이 접했다(박상영).

'줄기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격언이 있다. 박상영 교사는 탈북청소년이 '단 열매'만을 얻기만을 바라고, 결실을 얻기 위한 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싫어하는데, 그 배경에는 자본주의의에 대한 단편적 식견,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일면적 수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뭐 많은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거랑은 조금 별개인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이제 부작용,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좋은 집과 차와 이런 것들이 수월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배신감이라고까지 표현할 순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이미숙).

드라마 속 남한의 풍요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서 오히려 현실적인 적응보다는 기대에 따른 실망감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와 같은 콘텐츠에 거리를 두지는 않는다. 오히려 계속해서 탐닉의 대상 혹은 환상의 연장으로서 드라마나 영화를 수용한다. 어쩌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탈출의 시간이 드라마나 가요의 감상을 지속시키는 지도 모르겠다. 물론 동시에 한국 사회의 현실 인식이 드라마나 영화,

가요를 수용함에 있어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숙 교사는 한국 드라마나 가요, 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수용의 태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드라마 속 남녀관계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나, 가수들이나, 우선 영화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 때 되게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볼 때 장면들이 나올 때 그것을 무덤덤하게 보는데, 이 친구들은 어쨌든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밌게 보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이미숙).

(1) 2005년 이전 탈북

> 북한에서처럼 많이 한국노래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북한노래 중에 북한의 한 가수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14]를 러시아어로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부른 거를 들어보니까 저게 그거구나, 한국노래구나. 아 엄청 반가운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들었던 그 다른 나라 말로 듣다가...(김영진).

> 저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안 살고 북한에서 이제 바로 중국에 3일 정도 있다가 바로 한국에 왔거든요, 정말 극과 극을 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길거리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머리 염색하는 거까지도 다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 정말 이 사회에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드라마도 되게 많이 보고, 드라마 대사도 많이 따라하고, 특히 그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하잖아요. 앵커들이 (하는 말)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쓰는 용어 자체를 다르고, 북한은 뉴스 진행할 때도 다 알지만 엄청 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막 이렇게 귀가 간지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 한다는 거 자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실생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이해하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김민영).

---

14) 심수봉이 불러 알려진 <백만송이 장미>는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리트비아의 지역 방송국 주최 가요제 출품곡이었다. 나중에 개사된 노래를 알라 푸카초바라는 가수가 <마리나가 주었네>라는 제목으로 불러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제가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중국에서 접했던 문화물이나 연예인이나 그런 게 여기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게 됐어요. 통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거기서보면 공식적인 거 노래나 드라마나 그런 것을 접했는데, 여기 애들은 그런 것보다 스캔들 그런 거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여기서 안 통하는 게 그거 한가지더라고요. 막 얘기하다가 노래 드라마 그런 얘기하다가, 오히려 그 친구는 드라마 이런 거를 우리처럼 쭉 챙겨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목만 알정도, 가끔 봐 이런 정도지. 최진실이 옛날에 어쨌잖아. 이런 식으로 그걸 많이 알잖아. 우린 그게 진짜 신기해서. 그게 또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를 우리는 이제 느끼고 얘들은 예전에 느끼고 그래서 얘기하면 잘 모르는 거죠. 그거는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까지는 미쳐 못 들어가는 그런 게 있죠.

(2) 2005년 이후 탈북

탈북청소년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많은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는 점은 탈북청소년의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대체로 공통된 의견이다. 하나원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한 차이들을 목격한 이준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요번 기수에 평양 여자애가 두 명 들어왔는데 얼굴에 '평양'이라고 쓰여 있어요. 수업 시간에 계속 머리 만지는, 외모에만 신경 쓰는 애들. 걔네는 도시애들, 좀 사는 도시애들. 얼굴의 모습이나 (부끄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이 1년 전에는 아 재네들 시골에서 온 애들. 북한이란 개념보다 맑은 시골에서 온 애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층이 나뉘어져. 쟤는 껌 좀 씹다 온 애들, 놀다 온 애들. 최근 2년 사이에 기수별로 딱 놓고 보잖아요. 불과 2년인데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 내가 보기엔. 지금 오는 애들은 진짜 그냥 (한국 사회에) 데려다 놓으면 어울릴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한 15%. 평양 애들, 요즘엔 청진 애들. 중국에서 오래 좀 있던 애들. 고생해서 온 느낌하고 달라요(이준호).

이준호는 과거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청소년들은 시골에서 막 올라온 맑고, 순진한 그리고 고생이 많았던 애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최근 몇 년 새 그러한 느낌에 변화가 왔다고 지적한다. 최근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청소년들

은 시골 느낌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도시출신의 비교적 세련된 느낌, 비행청소년 같은 느낌 등을 주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모와 생활 태도로 볼 때, 한국 사회로 곧바로 진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청소년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탈북청소년의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가치나 태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이질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노출과 수용 경험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한 느낌을 주는 이들은 대개 대도시 출신이거나 중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비교적 긴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미리 보고 오는 거는 환상을 만든다니까요. 드라마가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자주 보긴 자주 봐요. 사람이 자꾸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거 그냥 드라마야 하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중국에서 한국드라마를 보잖아요? 보는데.. 중국에서 한국드라마를 보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중국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그렇게 일하다가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가면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중략). 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어울려 사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돈 인거예요. 사람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보였는데 실제 와보니까 실망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적응에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방해가 된다기보다도 일단 그런 거 보게 되면 환상 같은 걸 가지니까 한국에 딱 와서 실망하죠.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좀 혼란스럽겠죠(이혁렬).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지. (한국에)올 수 있게 유혹을 하고, 정작 와서 보면, 솔직히 그거랑 완전 다른 거죠. 올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되죠. “나도 가면 잘 살 수 있다.” 꿈이 대부분 다 깨지는 거죠. 정작 와서는 방황을 하고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서 시작을 하잖아

요. 뭐를 선택해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저희 아직도 그래요(이수혁).

최진철의 경우처럼 중국에서 어렵게 살 때, 한국 드라마는 일종의 지금과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사회로 오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삶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했을지라도 막상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 기대가 실망으로 급격히 전환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다. 드라마의 허구적 속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드라마는 환상을 키우는 요인이다. 붙잡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 않은 기대들이 삶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한 한국 사회에 대한 선험적 수용이 한국 사회의 적응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혼란을 가져다주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반면에 현실의 다양한 차원들을 보여주는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미와 이해도의 차원에서 볼 때,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뉴스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이수혁). 지금도 여기서 하는 뉴스를 보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들어 보고 "저 새끼 저 지랄 하네" 하는데, 우리는 다 보고도 과연 뭔 소리일까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내가 알아들어야 보는 거지, 재밌어야 보는 거지, 재미가 없으니까 오직 드라마뿐인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그걸 그냥 접하는 거예요(최진철).

왜 '왕따' 같은 게 있는지, FTA가 뭔지. 한창 뉴스에 나오는 정치, 정당, 여당, 야당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같아요. 뉴스를 같이 봤을 때 그런 반응을 나타내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당이 뭐고, 야당이 뭐고,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듣고, 왜 저런 식으로 결정이 나고, 저걸 갖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러는지,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이미숙).

방송 장르 중 드라마와 같은 허구적 이야기에 끌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들이 보도되는 뉴스에는 거리를 두게 되면서, 환상과 현실 인식 사이의 괴리는 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좁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효과 영역에서 논의되는 미디어의 제3자 효과(third person effect)나 배양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한류의 선험적 수용이 내가 아닌 다른 탈북청소년에게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과 함께 반대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다음은 큰엄마에게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으로의 이동을 자극하려고 했던 김영진의 에피소드다.

> 중국에 큰엄마가 도움을 받으러 왔었어요. 그 때는 제가 합법적으로 증명해서, 한국인이 돼서 만나는 그런 거 이었는데, 큰 엄마의 생각을 돌려놓을려고 제가 영화를 빌려줬는데, 어쩜 그렇게 다 싸우는 그런 거 밖에 없는 거였어요. 드라마는 <파리의 연인> 이런 거를 보여줬어요. 그건 또 곱게도 일하는 거니까 해줬는데, 큰엄마한테 딱 와 닿는 거는 깡패 같은 그런 거 폭력적이고 무섭고 무법천지이고 그런 것만 딱 다가온 거예요. 큰엄마가 저 한국이 저 자본주의가 저렇게 무섭다고 이러는 거예요. 큰엄마 저거는 영화고 내가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 저거는 만나기 쉽지 않은 거고 오히려 <파리의 연인> 이런 드라마 같은 게,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생활에서 대부분이 그런 일들이다 하니까 이거야말로 선전하는 거고, 사실 막 쌔고 폭력적인 게 더 와 닿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해도 큰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혼자 설명하기는 부족하니까 일단 영상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일단 빌려서 보여줬는데, 드라마에 좋은 모습 그것은 아니라하고, 영화 속에 오히려 아닌 모습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정말 답답했죠. 어쩜 그게 나라도 그랬겠다 싶었죠. 저도 그랬으니까. 중국에서 영화 볼 때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오히려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재미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주유소 습격사건> 같은 경우는 막 때리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는 진짠 줄 알았거든요.

김영진은 영상이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유통되는 한국 영상 중 김영진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의도치않게 상당수가 폭력적인 영상이었다. 반면에 <파리의 연인>같은 멜로물은 마치 선전 영상처럼 큰엄마에게 인식되는 경험을 했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삶의 질서가 보편화된 오늘 날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탈북청소년에게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그러한 삶의 원리는 낯설고, 비인

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드라마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선과 악의 구도로 제시되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서바이벌 식 경쟁 논리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지점들에서 체험을 통해서 사소한 것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올 때처럼 환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와보니까 이 사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환상했던 게 이제 거기서 막 힘들어지는데... 이(남한) 사람들 뭐해도 그냥 밟고 올라가고 그런 것만 보잖아요. 이 사회는 그렇게만 살아야하는구나 이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야하고 피터지게 돈 벌어야하고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나도 쟤처럼 돼야지. 나도 서울대가야지 그런 게 있어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미리 많이 보고 알고 오면) 갑자기 걔네가 혼란 많이 안겠죠, 결국은.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한걸음 걸을 때도 내가 선택해서 걸어야하잖아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가도 되고 그래서 혼란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건 산더미처럼 많은데 돈은 없고, 해야 하겠는데 별로 해본적도 없고, 일도 재미없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심도 다 잃고. "쟤 안 돼!" 이렇게 홀대받고 하니까 북한 애들은 미쳐 버리는 거죠. 술 부어 깽판부리고 그러는 거죠(최진철).

내가 이젠 정신 차렸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계기가 많아야 돼요. 저도 늘 이야기하는 '학비'라는 말하잖아요. 정말 학비를 많이 내야 돼요. 정말 어디 가서 돈을 정말 질러서 정말 미친 듯이 놀아도 보고, 어디 가서 미친 짓 당해도 보고, 우리가 그 짓 해봐야, 계기가 많이 되야 "아 내가 빨리 털어내자." 간접경험이라도 자주 좀 하면 좋은데 간접경험보다는 저도 요즘 집에만 가면 드라마만 보거든요. TV 채널만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나도 드라마에 빠져서 드라마랑 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현실이면 좋을 텐데, 현실이 아니잖아요. 드라마를 보는 한 시간만 지나면 현실로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 시발 좆같네. 나는 언제부터 저렇게 살겠냐, 나는 저렇게 살기나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최진철).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죠. 나도 저만큼 살아야겠다. 뭐그

런... 좀 그런 악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 외에는...(이수혁).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알게 되니까 잘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겠지? 그런 측면에서 나도 좀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돈 벌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이혁렬).

대중문화, 남한 사회가 저렇구나. 남한사회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런 데구나.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만 근데 이게 남한의 절반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부잣집 애들이고 다락방에 사는 사람 한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나왔다가 부자 되고. 그러니까 도움이 완전히 안되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 필요악인 것 같아요.

대체로 허구적 이야기의 환상을 비판적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체제에서 길들어진 탈북자에게 한국 드라마의 선험적 수용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까? 남녀 간의 성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북한과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응은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나름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남자들 막 여자들한테 싸대기 맞을 때, 그리고 자기 여자한테 두서없이 말 못할 때, 저사람 왜 저러지 내가 괜히 막 분노해가지고. (중략). 근데 이게 지금까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1~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이 사회는 이게 아니구나. “아~ 이 사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구나” 근데 조금은 좀 더 나이 먹고 커가잖아요? 그럼 타협이라는 게 필요하구나(최진철).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욕하면서 봤어요. 저런 놈이 있냐고. 저는 둘이서 욕을 하면서 봤어요. 바보라고. 점점가면서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사회니까(이수혁).

남한보다 가부장적 풍토가 강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드라마 등을 통해서 보이는 남한 사회의 남녀 관계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충격적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특히, 탈북 남성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여성의 경우도 비슷하

게 느끼는 바이다.

(드라마 속 남자들이) 자상하다는 게 느끼지 않았냐? 약간 한국 드라마 보면은, 남자들이...(최영훈).

저는 <사랑이 뭐길래>를 보면서 대발의 아버지, 저는 익숙했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나중에 엄마가 한번 히스테리를 부려가지고 집 탁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마루에 앉아가지고 쌈을 씻고 있었나, 또 그런 거에서 오~~ 그렇구나. <사랑이 뭐길래>를 보면서 굉장히 북한에서 보던 흔한 아버지상이었고, 되게 과묵하고 무뚝뚝하고 굉장히 막 온 가족에 지배자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좀 바뀌잖아요. 아내 그 한번에. 그래가지고 되게 익숙하게 보다가 좀 많이 놀랐던 거 같아요(최영훈).

한편, 한국에 대한 환상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서울의 표준말에 대한 체득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이는 조선족 거주 지역에서 재중탈북 청소년이 조선족 청소년의 한류에 대한 열망을 간접 경험하면서도 증대된다.

중국에 있을 때 가장 선망하는 그 조건이 1위가 저희가 한국어, 서울말이었어요. 뭔가 이제 싹싹하고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이 멋진 생활을 하는데 쓰는 말이래서 내가 한국생활의 시작은 한국어를 쓰는 데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김영진).

말투나 억양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탈북청소년에게 서울 표준말에 대한 동경과 모방은 일반적인 현상처럼 보인다. 이때 드라마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혹은 교재로서 작동한다. 자신의 고향말을 버리고 무조건 서울말을 따라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탈북자에게 북한 말투와 억양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계기라는 점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의 작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때 드라마는 장기방어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를 두고 미디어의 긍정적 효과라고 간주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만한 삶의 도구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의 양상과 그것이 탈북 동기와 한국 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을 2005년을 전후하여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봤다.

먼저, 2005년을 분기점으로 잡은 이유는 흔히 2000년대 중반은 탈북 동기의 변화가 감지되는 시기였다는 점이다. 식량난이 절대적인 탈북 동기였다가 점차 자유를 추구하거나 가족의 재결합 등의 이유가 중요한 탈북 동기로 부각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탈북의 시도가 그 시기를 전후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물론 특정한 사건이나 결정적 계기로 인해서 탈북 동기가 획기적으로 변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는 탈북 동기의 변화 과정에서 중간지점의 어딘 가를 점하는 시기가 2005년이라고 봤다. 그래서 탈북청소년 초점집단인터뷰에 참가시킨 연구대상은 2003년 전에 탈북한 집단과 2009년 이후에 탈북한 집단으로 구분했다.

탈북청소년의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 양상은 2005년을 전후로 볼 때, 전기에는 북한에서보다는 중국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를 많이 수용했고, 후기에는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접촉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한국에 유입된 탈북청소년의 경우,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급격히 축소된 점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전기에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북한 사회 내부로의 유입이 장르별, 지역별, 계급별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후기에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가요,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들이 도시와 농촌, 간부와 일반 주민 등 북한 사회 내부의 다양한 계층에게 폭넓게 확산된 것이 또 다른 차원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기에는 테입의 형태로 한국의 가요나 영상이 확산됐다면, 후기에는 디지털 매체의 활용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돼 갔다. 전후기 공통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이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가족이나 매우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만 공유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유의 폭과 범위는 전기에 비해서 후기에 늘어났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청소년 집단 중 일부는 한국의 대중가요와 춤을 그들의 놀이문화로 활용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청소년들은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같이 놀이를 할 때 한국의 대중가요를 같이 부르거나 서로 배우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춤의 경우, 한국대중음악에서

등장하는 춤인지도 모르면서 따라하는 등 청소년들이 그들 스스로의 놀이 과정 속에서 한국대중문화를 이용하고 한국대중문화가 이러한 놀이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전파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탈북 동기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이 탈북을 촉매하는 역할에서 보조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진단한다. 전기의 경우, 탈북을 유도하는 보조적 기능보다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이동을 촉매하는 기능을 수행했고, 후기의 경우에 탈북을 촉매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90년대 중반이후의 대량탈북 사태의 핵심 이유는 식량난과 생활경제의 위기였다. 그러다가 점차 그러한 경제적 위기가 다소 완화되고, 동시에 폐쇄된 북한 사회 밖의 소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면서 자유로운 삶,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선택,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 헤어진 가족의 재결합 등이 탈북의 주요 동기로 떠올랐다. 이러한 동기들이 탈북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탈북청소년에게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다.

즉,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삶을 미리 들여다보고, 그곳에서의 삶을 기대하게 하는 선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적 삶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적 기대를 갖게도 만들었다. 그러나 후기의 경우, 한국에서 탈북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들이 북한 사회로 유통되면서, 그러한 정보에 노출된 경우에는 환상적 기대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혹은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그려지는 미디어 속 모습이나 정보에 고나해서는 초기 탈북자와 비슷하게 비현실적인 인식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기대에 대한 좌절감이나 실망을 느끼는 정도는 전기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청소년 전문가들은 한국 대중문화가 어느 정도는 탈북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고양시켜, 한국 사회의 현실적 적응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탈북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장르인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한 경향이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특수한 경우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평가하고,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이 탈북청소년에게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체계적으로 교육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어도 하나원에서부터 그러한 교육이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 부분에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는 다음의 양적 연구를 위한 토대로 활용됐다. 그러나 양적 연구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연구로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보다 엄밀한 이론적 개념을 가지고 개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2절. 양적 연구 결과

1. 탈북청소년의 탈북 시기에 따른 한류 수용 경험의 특성

1) 북한 거주시의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이용 방식

북한 거주 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이용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로 구분하였다. 한국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를 한 번이라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북한 내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분류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북한 거주시 한국 대중문화와 접촉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157명(85.3%)이 한국대중문화와 접촉이 있었으며 27명 (14.7%)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북한에 거주할 때 한국대중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중문화 장르별 이용현황을 이용하는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드라마는 알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101명, 70.1%), 가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판(68명, 44.4%)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 소식을 접할 때는 매체보다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53명, 35.6%).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을 모두 포함했을 때 한국 대중문화를 접할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 역시 알판이었다(86명, 61.4%)(<표 6> 참고).

<표 6. 북한 거주시 한국대중문화 이용현황>

	드라마	가요	한국 소식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텔레비전	19(13.2%)	15(10.5%)	27(18.2%)	23(16.4%)
테이프 재생기	19(13.2%)	21(14.7%)	N.A.	N.A.
알판	101(70.1%)	68(47.6%)	N.A.	86(61.4%)
컴퓨터	1(.1%)	3(2%)	N.A.	4(2.9%)
휴대용 재생기	4(.3%)	36(25.2%)	N.A.	9(6.4%)
라디오	N.A.	N.A.	27(18.2%)	18(%)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N.A.	N.A.	53(35.6%)	N.A.
휴대폰	N.A.	N.A.	42(28.2%)	N.A.
전단지	N.A.	N.A.	1(0.7%)	N.A.
총	144	143	149	140

한편 이용하는 장르에 따른 이용량은 드라마는 평균 8.56편 (SD = 59.20), 영화는 평균 3.57편(SD = 5.94), 일주일 평균 라디오를 듣는 시간은 56.46분 (SD = 169.17), 일주일 평균 가요를 듣는 시간은 97.63(SD = 249.28)이었다 (<표 7> 참고).

<표 7. 북한 거주시, 제3국 체류기간, 조사기관에서의 대중문화 이용량>

		N	평균	표준편차
북한 거주시	드라마 수	140	8.56	59.2
	영화 편수	144	3.57	5.94
	라디오	163	56.46	169.17
	대중가요	176	97.63	249.28
제3국 체류시	드라마 수	176	14.94	76.81
	영화 편수	172	10.89	20.46
	뉴스	184	273.74	561.87
	대중가요	184	148.14	328.08
조사기관	드라마 수	166	3.7	3.6
	영화 수	160	3.91	4.15
	뉴스	182	113.98	244.85
	대중가요	175	73.91	154.31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가요, 뉴스를 등을 주로 접하는 방식은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알판을 빌려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92명, 62.2%), 남한에서 오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를 직접 잡아서 보거나 듣는 경우(24명, 16.2), 장마당에서 직접 알판 등을 사서 보는 경우(14명, 9.5%)의 순이었다('기타' 응답은 18명,12.2%). 또한 한국대중문화를 보는 방식은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같이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친구들, 63명, 42.9%; 61명, 41.5%).

응답자들이 북한 거주 시 한국 대중문화를 자주 이용한 정도는 '가끔 보았다(75명, 48.1%)', '거의 보지 않았다 (42명, 26.9%)', '자주 보았다(28명, 17.9%)', '계속 꾸준히 보았다(8명, 5.1%)'의 순서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북한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주로 알판을 통해 이용되며 한국에 대한 소식은 미디어를 이용하기 보다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주민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 대중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극히 낮은데, 드라마, 가요 등을 컴퓨터로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은 컴퓨터 보급률이 낮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낮은 컴퓨터 보급률에 따라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 역시 이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제3국 체류기간 중의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이용 방식

탈북자들은 탈북이후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제3국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제3국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한국대중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탈북자의 응답을 통해서도 이 점은 확인되는데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중에서 최소 1개 항목 이상을 접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0명으로 97.8%에 달했다.

또한 제3국 체류기간에 한국 대중문화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드라마(132명, 74.6%), 영화(31명, 17.5%), 가요 프로그램(9명, 5.1%), 한국 관련 방송 뉴스(5명,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르별 이용량을 살펴보면 북한 거주기간과 비교했을 때 드라마, 영화, 뉴스, 대중가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용하는 미디어의 순서를 보면, 텔레비전(129명, 73.3%), 알판이나 MP3(28명, 15.9%), 인터넷(10명, 6%), 라디오(9명, 5%)의 순서였다. 이용하는 미디어가 텔레비전이 가장 많다는 것은 북한 거주 시에는 알판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눈의 띄는 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도가 북한 거주시와 비교할 대 급격히 증가하는 데 이점은 체류국가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컴퓨터나 인터넷이 구비되어 있어 탈북자들이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다.

또한 한국대중문화를 누구와 같이 보는가하는 점에서도 북한 거주 기간과 차이를 보이는데 북한에서는 친구나 가족이 대부분의 응답을 차지한 반면, 제3국 체류기간의 경우는 혼자서 봤다(34명, 20.6%), 친구들과 함께 봤다(50명, 30.3%), 가족과 함께 봤다(60명, 36.4%) 등의 응답이 북한 거주 기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마지막으로 체류국가에서 한국 대중문화나 한국 소식을 접하는 계기를 살펴보면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한국 대중문화나 한국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60명, 69.6%), 그 외의 응답은 비슷한 빈도로 관찰되었다(인터넷으로 보면서, 20명, 11.9%;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보여줘서, 12명, 7.1%; 가족, 친척, 친구, 아는 사람이 배워줘서, 19명, 11.3%).

이러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탈북자들은 제3국에 체류하면서 한국대중문화를 실

질적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북한 거주시의 한국대중문화 접촉 여부에서 나타나듯이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도 한국대중문화를 접하기는 하지만 접촉빈도나 양에서 개인차이가 많아 한국대중문화를 꾸준히 접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제3국에 머무르면서 한국대중문화를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한국대중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한국 드라마나 방송을 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태국과 같은 제3국에서는 한국대중문화를 접하는 것이 쉽다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3) 입국 후 조사과정 기간의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이용 방식

입국 후 조사과정 기간 중에 탈북자들은 한국대중문화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다. 조사과정 기간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되어 있으며 교육시간 이외의 자유시간에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조사기간 중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정도는 하루 1~2시간(70명, 39.1%), 하루 5시간 이상(50명, 27.9%), 하루 3~4시간(35명, 19.6%), 거의 보지 않는다(23명,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1시간 이상 한국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비율은 약 86%이며 하루 3시간 이상 한국대중문화를 소비한다는 중이용자 역시 47.5%로 거의 50%에 달했다.

드라마, 영화, 뉴스 등의 소비 현황을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실제 소비량에서는 제3국 체류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관찰됐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소비량이 개인차에 있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조사기간 중에는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일정 정도 이상의 한국대중문화를 소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은 다시 한 번 탈북자들의 한국대중문화 수용양식이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4) 입국시기별 한국대중문화 수용 방식의 차이

탈북자의 북한 거주 기간의 한국대중문화의 장르별 소비량, 제3국 거주 기간의 한국대중문화의 장르별 소비량, 조사과정의 한국대중문화의 장르별 소비량이 입국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제3국 체류기간의 한국영화 소비량으로,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일수록 탈북이후에서 입국이전까지의 제3국 체류기간 동안, 한국영화를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r = −.15, p =.05). 그 외의 변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참조). 이 점은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일수록 제3국의 체류기간이 짧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대중가요나 드라마보다는 장시간을 요구하는 영화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입국년도와 한국대중문화 소비량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북한거주, 드라마	1												
②북한거주, 영화	.049	1											
③북한거주, 라디오	-.013	.035	1										
④북한거주, 대중가요	-.023	.068	.224**	1									
⑤제3국, 드라마	.091	.146	-.025	-.038	1								
⑥제3국, 영화	-.015	.007	-.060	-.096	.488**	1							
⑦제3국, 뉴스	-.035	-.009	.089	.175*	.014	.015	1						
⑧제3국, 대중가요	-.059	-.037	.013	.036	.274**	.402**	.057	1					
⑨조사기간, 드라마	.645**	.103	-.016	-.067	.231**	.277**	-.045	.123	1				
⑩조사기간, 영화	-.030	.078	-.011	-.029	-.027	.115	-.049	.114	.423**	1			
⑪조사기간, 뉴스	-.065	.174*	-.006	.070	-.011	.058	.067	.073	.063	.091	1		
⑫조사기간, 대중가요	-.010	.023	.024	.059	-.009	-.066	-.010	.015	.023	.052	.253**	1	
⑬입국년도	.016	.059	-.055	.036	-.003	-.148	-.045	.005	.041	-.020	.015	.024	1

* $p < .05$

** $p < .01$

5)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평가와 문화적 할인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이 한국대중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구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로,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재미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영화와 드라마에서 한국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되고 한국의 사실을 잘 보여준다는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대중가요의 경우는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재미있었다', '한국 노래를 자주 불렀다', '한국노래를 친구들과 자주 불렀다' 등 세 항목이었다. 또한 뉴스의 경우는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한국의 뉴스는 한국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탈북자들이 한국의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 본 연구는 문화적 할인을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변인들을 이용해 탈북자들의 문화적 배경이 한국대중문화 수용과정에도 작용하고 있음을 고찰하고자 했다.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해당 문항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북한의 드라마와 영화의 줄거리가 많이 다르다', '한국의 드라마·영화의 배경은 처음 보는 것이 많다', '한국의 드라마·영화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많다', '한국의 드라마·영화에서 배우의 모습은 북한 사람들의 생김새와 다르다' 등이다. 대중가요의 경우는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했다', '한국 노래의 가사는 이해가 안됐다' 등을 이용했고 뉴스의 경우는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들을 때 잘 이해가 안됐다'는 문항을 사용했다.

이상의 변인의 분석 결과는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결과는 탈북자들은 한국드라마가 재미있다고 느꼈으며(M = 4.04, SD = 1.00),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M = 3.69, SD = 1.10), 한국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M = 3.20, SD = 1.10)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할인을 측정하는 변인인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북한의 드라마와 영화와 줄거리가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정도(M = 4.13, SD = 1.08), 배경이 다르다고 느끼는 정도, 사용하는 말이나 인물의 생김이 북한과 다르다고 느끼는 정도에서 각각 평균 3.52(SD = 1.11), 2.94(SD = 1.16), 2.97(SD = 1.15)로 분석됐다. 이것은 탈북자들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은 북한과 다르다고 느끼는 반면 사용하는 말이나 등장하는 인물의 생김새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다. 이상의 변인의 신뢰도 계수 크론바 알파값은 .56이었다. 이후의 분석에서 문화적 할인은 신뢰도 계수가 높은 두 항목,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은 북한과 다르다'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많다' 등 두 항목의 합한 값을 드라마나 영화의 문화적 할인 변인으로 사용했다(α =.61).

한편 대중가요를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 노래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고(M = 2.54, SD = 1.31, 1=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5 =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 재미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M = 3.86, SD = 1.17). 또한 자주 대중가요를 따라 불렀고(M = 3.32, SD = 1.14), 친구들과도 자주 같이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M = 3.17, SD = 1.28).

문화적 할인 변인인 '가사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평균 2.53으로 분석돼 가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D = 1.21, 1= 전혀 이해가 안됐다, 5=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경우,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M =3.38, SD = 1.26), 한국의 뉴스가 한국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3.53, SD = 1.22). 뉴스 장르에서의 문화적 할인 변인은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들을 때 잘 이해가 안됐다'는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평균값이 2.94(SD = 1.13)으로 분석돼 뉴스 이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평가와 문화적 할인 변인에 대한 요약>

			M	SD	크론바 알파
한국대중문화 수용					
드라마/영화	평가	재미있다	4.04	1.00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됨.	3.69	1.10	
		한국에 대한 사실을 보여줌.	3.20	1.10	
	문화적 할인	북한 드라마와 줄거리가 다르다*.	4.13	1.10	.61
		북한 드라마와 배경이 다르다.	3.52	1.08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	2.94	1.11	
		인물의 생김이 다르다.	2.97	1.16	
대중가요	평가	재미있다.	3.86	1.15	
		친구들과도 자주 같이 불렀다.	3.32	1.17	
		자주 따라 불렀다.	3.17	1.34	
	문화적 할인	이상하게 느껴졌다.*	2.54	1.28	.61
		가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2.43	1.31	
뉴스	평가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3.38	1.26	
		한국의 뉴스는 한국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3.53	1.22	
	문화적 할인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다	2.94	1.31	

* 해당 항목은 문화적 할인 변인 개념에 사용된 변인임

2. 한국 대중문화 수용이 한국 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사람에 대한 인식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적응은 한국사람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친밀감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한국 사람에 느끼는 인식정도는 '정직하다'(M = 3.10, SD = .94)', '착하다'(M = 3.19, SD = .10)', '서로 돕는다'(M = 3.02, SD = 1.09)', '다정하다'(M = 3.21, SD = 1.20)', '친절하다'(M = 3.40, SD = 1.20)', '부유하다'(M = 3.31, SD = 1.33)' 등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은 현재 한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M = 3.67, SD = 1.01), 먼저 다가가 이야기하는 편(M = 3.44, SD = 1.0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M = 2.72, SD = 1.15, 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한편 동포로서 느끼는 동질감은 앞서의 결과가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변인(M = 3.23, SD = 1.10)을 제외하고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생각이 같다'(M = 2.61, SD = 1.03),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행동이 같다'(M = 2.48, SD = 1.09)는 응답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탈북자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과 친밀함을 느끼고 있지만 동포로서의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는 느끼지만 생각이나 행동 등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있어서는 한국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은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한국사회의 의식의 측면을 관찰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0>에 실려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서 차별을 크게 느끼지는 않으며(M = 2.39, SD = 1.04), 북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느끼는 정도 역시 크지 않았다(M = 2.90 SD = .98). 다만 북한을 싫어한다고 느끼는 정도는 다소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M = 3.12, SD = 1.00). 탈북자들이 느끼는 북한사람과 북한에 대한 지각된 적대감을 합한 값을 지각된 적대감으로 사용하였다(α= .80).

탈북자들이 느끼는 문화충격의 정도는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충격과 한국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충격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문화에 대한 충격은 '돈이 최고다'(M =3.79, SD = 1.00), '명문대에 들어가야 성공한다'(M = 3.32, SD = 1.28),'영어를 잘 해야 성공한다'(M = 3.70, SD = 1.26)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한다'(M = 4.11, SD = .99) 등에서 높은 값을 보여 한국문화가 북한의 문화와 다르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간의 신뢰도 계수 크론바 알파는 .72였으며 이들 변인의 합을 한국문화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충격의 값으로 사용했다. 주요 사회적 관계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충격은 한국 가족관계와 북한 가족관계의 차이(M = 2.64, SD = 1.08)와 한국 친구관계와 북한 친구관계의 차이(M = 2.82, SD = 1.19)로 측정하였는데 가족관계와 친구관계가 북한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되었다. 이들 두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63이었으며 두 항목의 합을 주요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의 값으로 사용했다.

한국사회에서의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 북한동조,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 한국 사회와 한국말에 대한 이해 정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탈북자는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의 평균은 3.28(SD = 1.04)이었으며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한다고 느끼는 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 3.63, SD = 1.17). 두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67이었으며 두 변인의 합을 경제적 어려움 변인으로 사용했다.

정체성의 경우는 그다지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모른다'(M = 2.40, SD = 1.18), '옳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M = 2.18, SD = 1.11), '여가시간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M = 2.21, SD = 1.13) 등 세 항목 모두가 그렇지 않

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82였으며 이들 합을 정체성 변인으로 사용했다.

북한동조는 '남북한 경기시 북한을 응원한다'(M = 2.76 , SD = 1.15), '한국에서 북한을 비난하면 기분이 나쁘다'(M = 2.92 , SD = 1.26),'한국 방송에서는 북한의 나쁜 모습만 보여준다'(M = 3.14 , SD = 1.13) 등에서 다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신뢰도 계수는 .72 였으며 이들 항목의 합을 북한동조 변인으로 이용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긍정적인 값을 보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몸이 건강하다고 느낌, M = 3.35 , SD = 1.11; 마음이 건강하다고 느낌, M = 3.50 , SD = .91). 한편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정도와 한국말을 이해하는 정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됐다(한국사회 이해 정도, M = 3.50 , SD = .91; 한국말을 이해하는 정도 M = 3.59 , SD = .90). 마지막으로 향후 5년 이후의 스스로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4.34(SD = .90)인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들은 미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서 <연구문제 1>에서 분석된 대중문화수용에서 느끼는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평가와 문화적 할인 변인이 한국문화의 적응에 대한 변인, 스트레스 정도와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0> 참고).

<표 10.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분석>

			M	SD
스트레스	지각된 차별감	차별을 느낀다.	2.39	1.04
	지각된 적대감	북한 사람을 싫어한다.	2.90	.98
		북한을 싫어한다.	3.12	1.00
	문화적 충격: 남북한 문화의 차이인식	돈이 최고다.	3.79	1.00
		명문대에 들어가야 성공한다.	3.32	1.28
		영어를 잘 해야 성공한다.	3.70	1.26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한다	4.12	1.00
	문화적 충격: 주요 사회적 관계 인식	북한의 가족관계의 차이가 있다.	3.36	1.07
		북한의 친구관계와 차이가 있다.	3.16	1.18
한국사회에서의 의식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렵다.	3.28	1.04
		돈을 벌어야한다고 느낌	3.63	1.17
	정체성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모르겠다.	2.40	1.18
		옳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2.18	1.11
		여가시간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2.21	1.13
	북한 동조	남북한 경기시 북한을 응원한다	2.76	1.15
		한국에서 북한을 비난하면 기분나쁘다	2.92	1.26
		한국 방송에서는 북한의 나쁜 모습만 보여준다.	3.14	1.13
	몸이 건강	몸이 건강하다.	3.47	1.18
		마음이 건강하다.	3.35	1.11
	한국 사회와 말을 이해하는 정도	한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다.	3.50	.91
		한국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	3.59	.90
	긍정적 전망	5년 뒤의 나는 지금보다 더 잘살 것이다	4.34	.90

<표 11. 문화적 할인과 한국 적응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①드라마·영화:재미있음	1																					
②드라마·영화:한국에 대한 사실을 배움	.609**	1																				
③드라마·영화:한국에 대한 사실을 보여줌	.403**	.546**	1																			
④드라마·영화:문화적 할인[a]	.311**	.259**	.289**	1																		
⑤대중가요:재미있음	.404**	.452**	.276**	.137	1																	
⑥대중가요:친구와 자주 불렀음	.186*	.131	.135	.178*	.292**	1																
⑦대중가요:문화적할인[a]	.018	.048	.016	.227**	-.051	.191*	1															
⑧뉴스: 사실을 앎	.348**	.362**	.398**	.269**	.252**	.355**	.042	1														
⑨뉴스: 사실을 알려줌	.274**	.439**	.388**	.184*	.366**	.281**	.037	.672**	1													
⑩뉴스: 문화적 할인	.066	.125	.078	.191*	.254**	.228**	.289**	.218**	.355**	1												
⑪지각된 차별감	-.051	-.098	-.087	-.006	-.089	.069	.017	-.038	-.090	.042	1											
⑫지각된 적대감[a]	.076	.003	.080	-.050	.015	.073	-.067	.034	.098	.007	.480**	1										
⑬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충격[a]	.334**	.162*	.120	.070	-.002	.039	-.148	.254**	.216**	-.002	.177*	.335**	1									
⑭한국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화충격[a]	.027	.091	.063	.077	-.053	-.121	-.027	.138	.174*	.043	.087	.124	.153*	1								
⑮건강	.156*	.167*	.165*	.088	.011	.139	.100	.264**	.235**	.001	-.133	.034	.200**	.162*	1							
⑯한국사회 이해	.178*	.210**	.136	.006	.208**	.213**	-.006	.351**	.291**	.092	-.214**	-.046	.181*	.001	.513**	1						
⑰한국말 이해	.253**	.145	.179*	-.036	.197*	.177*	-.055	.210**	.255**	.085	-.171*	.082	.279**	.070	.365**	.612**	1					
⑱5년 뒤의 전망	.396**	.233**	.244**	.025	.181*	.081	-.172*	.223**	.234**	.040	-.141	.078	.360**	.014	.255**	.307**	.308**	1				
⑲경제적 어려움	.175*	-.020	.104	.097	.034	.074	-.053	.240**	.115	.047	.270**	.311**	.418**	.058	.107	.094	.111	.244**	1			
⑳정체성[a]	-.104	.032	.011	.101	-.042	.069	.179*	-.055	-.062	.069	.294**	.092	-.052	-.035	-.250**	-.194**	-.205**	-.402**	.089	1		
㉑북한동조[a]	.009	.015	-.007	.134	-.078	.018	.089	-.010	-.043	.068	.166*	.158*	.023	.094	.279**	-.007	-.082	-.036	.113	.055	1	
㉒입국연도	-.079	-.027	.012	-.064	.059	-.054	-.186*	.023	-.033	-.007	.029	.044	-.030	.098	.024	.034	.041	.023	-.003	.023	-.008	1

* $p < .05$, ** $p < .01$. a. 개별 변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새로 만든 변인.

<표 11>의 분석결과에서 먼저 탈북자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대중가요의 평가 항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재미있다고 평가하면 대중가요 역시 재미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점은 뉴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었다.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다, 혹은 뉴스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를 재미있게 보고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문화적 할인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와 영화, 대중가요, 뉴스 등의 세 가지 장르에 대해 각각 문화적 할인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장르별 문화적 할인은 장르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평가와 유의미한 관련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와 영화를 재미있다고 여기거나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느끼더라도 이것이 문화적 할인과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대중가요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관찰되는데 대중가요의 문화적 할인 변인이 대중가요를 재미있다고 여기는 평가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뉴스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인데, 뉴스가 사실을 알려주고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다고 느끼는 경우, 문화적 할인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뜻하는 바는, 문화적 할인이라는 요소가 대중문화 소비 과정의 한 요소로 작용하며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가 재미있다는 평가 항목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를 즐기면서 콘텐츠 자체에서 흥미 요소를 파악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문화적 배경 역시 대중문화소비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특히 이 점은 드라마와 영화, 대중가요의 경우는 재미있다는 평가와 문화적 할인 변인이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지만, 뉴스의 경우는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사실을 배운다는 평가가 뉴스의 문화적 할인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다. 곧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해에 도달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한국대중문화 수용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각된 차별감과 지각된 적대감은 대중문화수용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의 소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차별에 대한 인식과 적대감에 대한 인

식은 대중문화소비에 따른 간접적 학습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주위의 관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별이나 적대감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들의 실제 경험이나 주위의 관찰 경험에서도 차별이나 적대감 인식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충격과 한국에서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문화적 충격은 드라마와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정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뉴스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느낄수록 한국사회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충격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드라마와 영화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콘텐츠에서 그려지는 한국적 현실을 보고 이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가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려 준다고 느낄수록 문화적 충격이 크게 느낀다는 점 역시 이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관련해서 언급되어야 할 연구결과는 탈북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역시 드라마와 영화를 재미있다고 평가한 정도와 뉴스를 통해 한국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정도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한국 사회에 대해 문화적 충격을 더 느끼게 되며 또한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본인의 현실적 조건에 투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한국말에 대한 이해는 대중문화의 수용양상과 많은 연관을 보여주는 요소로 관찰됐다.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는 드라마나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것, 드라마와 영화가 한국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대중가요를 재미있다고 평가하는 것, 대중가요를 친구와 같이 자주 따라 불렀다는 응답, 뉴스가 한국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 등과 모두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대중문화를 소비면서 이를 즐기고 이를 통해 한국 현실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한국을 알고 있다는 평가에 긍정적으로 공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말에 대한 이해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한국말에 대한 이해는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다고 평가하는 것, 드라마나 영화가 한국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대중가요를 재미있다고 평가하는 것과 대중가요를 다른 친구들과 자주 따라 불렀다는 경험, 뉴스가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느끼

는 것 등, 드라마, 영화, 뉴스 모두와 대체적으로 정적인 연관을 보이고 있다. 탈북자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뉴스에서 한국사람들이 쓰는 말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는 탈북자의 5년 뒤의 전망에 대한 것이다. 탈북자 개인이 느끼는 5년 뒤의 전망은 탈북자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미래의 전망은 현재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생활의지, 목표 등과 결부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탈북자 개인이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엿볼 수 있다. 5년 뒤의 전망은 드라마와 영화가 재미있음, 드라마와 영화가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음, 대중가요가 재미있음, 뉴스는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등의 항목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한국대중문화를 즐겁게 소비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개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기여한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한국대중문화를 통해 그 속에 묘사된 개인의 삶에 탈북자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투영시킨 결과일 수도 있겠다.

3. 소결

분석결과, 한국대중문화 수용과 한국적응 간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화적 할인에 대한 것으로 드라마·영화, 대중가요, 뉴스 등의 장르별 문화적 할인은 상호간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영화의 문화적 할인 변인은 대중가요의 문화적 할인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r = .23 , p < .01), 대중가요의 문화적 할인 뉴스의 문화적 할인 변인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9 , p < .01). 또한 드라마·영화의 문화적 할인 변인은 뉴스의 문화적 할인 변인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19, p < .05).

이들 문화적 할인 변인은 드라마나 영화, 혹은 대중가요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재미있다', '자주 따라 부른다' 등)의 변인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적 할인이라는 요소를 대중문화 수용의 일반적인 평가와는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한국대중문화 수용과 한국적응에 대한 관계에 집중하면 한국에서 느끼는 차별감이나 적대감은 한국대중문화 수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충격, 경제적 어려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한국말에 대한 이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됐다.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충격은 드라마·영화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정도, 드라마·영화에서 한국에 대한 사실을 배운다고 느끼는 정도, 드라마·영화의 문화적 할인과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가 사실을 알려준다고 파악하는 정도와 뉴스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실을 배웠다고 인식하는 정도 역시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충격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점은 드라마·영화, 뉴스를 통해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는 드라마·영화가 재미있다는 평가와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평가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뉴스를 소비하면서 탈북자들은 한국에서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한국사회의 실제 본인의 경제적 생활

수준이 이에 미치지 않게 되면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체성은 대중가요의 문화적 할인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곧 대중가요를 통해 북한과 한국이 서로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일수록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한국말에 대한 이해는 드라마·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드라마·영화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대중가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년 뒤의 자신에 대한 전망은 드라마·영화를 재미있게 즐기고 이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것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또한 드라마·영화의 문화적 할인 역시 긍정적 관계를 보여 드라마와 영화 수용 과정에서 두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관찰됐다. 한편 대중가요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문화적 할인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대중가요를 소비하면서 한국과 북한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대중문화 수용과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는 첫째 한국대중문화의 수용과정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와 영화, 대중가요, 뉴스의 경우, 재미있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충격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한국말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이 관찰되어 대중문화의 긍정적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가 분석한 문화적 할인 변인의 경우는 앞서의 대중문화 수용에 대한 정서적 평가와 다른 독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관찰되어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과정은 정서적 평가이외에도 수용자의 문화적 배경 역시 작용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한국대중문화 콘텐츠의 수용이 한국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사회 적응의 특정한 요소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곧 대중문화수용은 한국 사회와 한국말에 대한 이해, 한국문화에 대한 충격 등과 보다 유의미한 연관을 맺지만, 경제적 어려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이제까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지적하지 못한 측면에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한국대중문화의 수용은 탈북자의 한

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 작용하며 이 점은 본 연구가 애초에 목표로 한 한국문화의 수용과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두 요소가 통합적으로 살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입국시기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일수록 대중가요의 문화적 할인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중문화 수용의 다른 변인들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대신, 대중가요의 문화적 할인이 더 낮다는 것은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 한국대중가요를 통해 한국사회와 북한사회가 다르다는 인식을 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는 과거 탈북자보다는 한국대중문화에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대중가요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이 이전 탈북자보다 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 결론 및 함의

1. 결론

본 연구는 탈북자의 탈북 과정에 주목해 시기별로 한국대중문화수용 현상을 살펴보고 한국대중문화수용이 한국의 적응과정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 참가한 탈북자의 응답으로 봤을 때 북한주민 중 많은 수가 한국대중문화에 접촉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주 혹은 정기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대중가요를 접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시기는 제3국 체류기간과 입국 이후인데 제3국 체류기간에는 중국이나 태국과 같은 제3국에서 한국대중문화가 수용되는 정도에 따라 한국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를 접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별 차이를 요약하면 북한 거주 기간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대중문화를 접하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한국대중문화를 접하거나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특정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 기간에는 알판을 이용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한국대중문화를 접하는 특징이 있었다. 한국대중문화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간은 제3국의 체류기간 동안인데 한국드라마, 영화, 뉴스 등 분석된 모든 장르에서 제3국의 체류기간 내에 소비한 소비량이 북한 거주시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점은 무엇보다 북한에서는 한국대중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한국 드라마나 방송을 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태국과 같은 제3국에서는 한국대중문화를 접하는 것이 쉽다는 환경적 요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탈북자의 한국대중문화 소비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소비의 측면이라고 하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소극적 노출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대중문화를 접하는 시기는 입국이후 한국에서의 조사과정 기간이다. 이 시기는 교육과정을 통해 혹은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 갖는 개인 시간을 통해 한국대중문화를 접하게 된다. 드라마, 영화, 뉴스 등의 소비 현황을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실제 소비량에서는 제3국 체류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관찰됐는데 표준편차가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소비량이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조사기간 중에는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일정 정도 이상의 한국대중문화를 소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탈북자들의 한국대중문화 수용양식이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질적 연구의 결과도 이와 같은 탈북자의 시기별 대중문화소비 양식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비밀리에, 중국에서는 신변의 안전을 기하면서 틈틈이,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진입하기 전 5~6개월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TV와 노래방 시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합동심문이 이뤄지는 초기 2~3개월 동안은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한국방송이나 영화를 시청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문제 중의 하나인 입국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일수록 한국영화에 대한 노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탈북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곧 이미 한국 등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잔여 가족 등을 이동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면서 최근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이런 요인들이 재중 체류기간을 줄게 했고,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에 노출될 기회도 줄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탈북자의 한국대중문화 수용은 동질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이하게 발전한 두 문화 간의 교류라는 점에 주목해 문화적 할인 개념에 기반을 두어 탈북자들의 한국대중문화 수용을 문화상품의 소비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의한 차이에 주목해 관찰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적 할인 변인은 대중문화 수용의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문화상품이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 이외와 별개로 작용하는 문화상품소비과정의 특징적 요소임이 관찰됐다. 그러나 대중문화상품을 소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현실인식의 요소가 한국 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크지 않아 변인의 설명력에서 의문이 남는다. 곧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재미있다'는 평가는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 충격, 경제적 어려움 인식, 한국말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개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연관이 있는 반면, 드라마·영화의 문화적 할인 변인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대중가요를 재미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한국말에 대한 이해, 개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연관이 있는 것에 비해 대중가요의 문화적 할인은 5년 뒤의 개인의 전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가요의 문화적 할인 변인 역시 만족할만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돼야 할 점은 설문 조사의 경우 샘플의 대표성의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184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엄밀하게 할당 표집이 진행되지 않았고, 샘플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편의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미 청소년의 연령대를 훌쩍 넘어선 30대 나이의 응답자들도 있었다. 북한이나 중국 등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짧게는 1년 길게는 10여 년 전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설문에 응답해야 했다. 따라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경험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들을 순수한 과거의 경험과 기억만으로 응답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 결과와 함께 설문조사의 결과가 절충적이고 보완적으로 해석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향후 학술지 연구로 자료가 사용될 때, 정교하고 치밀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다.

최초 연구 기획단계에서 K-pop에 대한 북한 사회의 영향을 다소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북한의 평양 등 대도시에 부는 K-pop 한류 바람이 북한 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중간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함경도 지역 출신들이 가장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에서 K-pop의 영향을 징후적으로 읽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청소년의 하위문화 내지는 저항문화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북한이나 중국에서 시청한 한국 드라마가 탈북 동기나 한국 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미디어 콘텐츠보다 강력하고 동시에 복합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 K-pop의 수용과 그에 따른 문화적 실천이라는 북한 사회의 특수한 한류 현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데 비해서 한국 드라마의 수용은 보다 폭넓게 이뤄지고 있고, 한국 사회로의 이동과 정착에서 대중음악보다 청소년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한류 콘텐츠의 수용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드라마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드라마를 통한 환상과 현실 인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연구 관심사로 이동시켰다.

한편, 드라마나 대중가요의 수용에서 이른바 '문화적 할인' 혹은 '문화적 근접성'의 개념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방송 문화 콘텐츠를 수용할 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들을 보강하려고 한다. '문화적 할인' 개념은 문화 상품의 수출에 관한 경제나 경영 측면에서의 접근이 일반적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동질성과 함께 분단 후 형성된 이질성이 공존하는 북한 주민에게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수용되는가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 전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문화적 할인' 개념을 통해서 대중가요와 드라마의 차별적 수용 혹은 '유행의 지연'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애초 기획단계에서 예상했던 방향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 향후 비슷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판단으로 한계의 측면에서 덧붙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는 '북한에 부는 한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한류의 변화양상이 다소나마 북한에서도 관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부는 한류에 대한 선호 양상은 보편적인 수용 경험이라기보다는 지역적 편차가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예컨대, 평양이나 지방 행정구역의 대표적인 도시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나 뮤직 비디오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공유되지만, 탈북자 수가 가장 많은 함경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8~90년대의 트로트 가요가 여전히 주요 장르로 수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 수용과는 다소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드라마 장르는 비교적 한국에서 방송된 지 그다지 오래지 않아서 북한 지역으로 폭넓게 확산되지만, 대중가요의 경우 적어도 함경도 지역에서는 랩이나 힙합, 혹은 댄스 가요보다는 트로트가 여전히 월등하게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폐쇄적 사회인 북한 사회에서의 문화적 지연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반면에 드라마의 경우는 그 영상 소스 자체가 최신작이 많고, 과거 영상을 구하고 배포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애초 연구자들은 한국대중문화 수용의 선경험이 탈북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영향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 중에서 탈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르는 무엇보다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드라마에 대한 수용 경험이 탈북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라기보다는 특정 계기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대신

드라마의 영향력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를 갖게 만드는 데는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점은 최근 한국에서의 탈북자의 삶에 관한 정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초기 탈북자들에 비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러한 환상적 기대의 양상은 다소 축소된다는 것도 동시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연구 기획단계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에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과 그 영향은 일면적이거나 단선적이고, 정태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충하고, 보완되며 역동적으로 작동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연구의 함의

이 연구는 한국 사회로 진입하는 탈북청소년의 대중문화에 대한 경험과 그에 따른 한국 사회에 인식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정서를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서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문화정책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그러한 방안의 모색이 충분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적어도 하나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미디어 시청을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개별적 선택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의 소재나 주제로 활용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탈북청소년의 방송 뉴스 교육의 필요성

탈북청소년이 한국의 방송 뉴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개 탈북청소년들은 방송 뉴스의 용어들이 낯설고 어려워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원에서부터 뉴스의 소재를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리고 뉴스 시청에 대

한 일종의 두려움 혹은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사 및 상식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합동심문 기간 동안의 체계적인 여가 활용 시스템 마련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조사와 교육이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1~3개월 정도의 조사 기간 동안에 탈북청소년은 한국 방송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며, 여가 시간 중 상당 부분을 방송을 보내는 데 할애하고 있다. 3개월의 하나원 교육 기간은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사전교육 차원에서 합동심문 기간 동안의 여가 시간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영화, 드라마, 가요, 뉴스 등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시청각적 교육이 필요하다. 너무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면서도 각각의 콘텐츠에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 자료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원 교육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의 사전 교육 내용에 비해 심화 단계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징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최근 한국에 온 탈북청소년은 출신성분과 출신지역, 제3국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대체로 시골에서 온 순진한 청소년의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도시적인 풍모를 보이는 다소 세련된 느낌을 주는 청소년도 있고, 매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마약 복용이나 거래 경력이 있는 청소년도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비행청소년'이라고 부르는 느낌을 주는 청소년들도 있다. 다문화적 차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교육과 함께 '비행청소년' 문제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사에 의한 우리 사회 적응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 및 영화 제작 현장의 방문 교육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다. 한국 대중문화를 선경험하면서 갖게 된 비현실적인 환상적 기대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위해서 현장 방문 교

육이 필요해 보인다. 드라마나 영화 제작 현장에서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고, 선택되며 어떤 느낌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장치들이 활용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스튜디오에서 영상이 제작되는 과정을 탈북 청소년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다면 방송에서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깨우침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완(2011). 북한에 확산되는 한류. 『북한』, 473호, 108-112.

강동완·박정란(2011).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 늘품플러스.

강동완·박정란(2010).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통일정책연구』, 19권 2호, 107-140.

곽정래(2011).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시민성 형성. 『한국방송학보』, 25권 3호, 92-132.

곽정래·박승관(2006). 새터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415~439.

금희조(2008). 미디어와 사회 자본. 『한국언론학보』, 4권 1호, 128-149.

김승현. "문화간 만남의 시공간: 문화제국주의부터 문화 세계화까지." 『프로 그램/텍스트』, 제11호,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4.

김주연·안경모(2012). 아시아국가에서의 K-pop 이용행동과 K-pop으로 인한 국가호감도 및 한국 방문의도 변화.『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권 1호, 516-524.

류은영(2011). 프랑스, 글로벌 한류의 가능성.『프랑스문화예술연구』, 38집, 443-464.

박정란·강동완(2011).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시청: '하위문화'의 형성과 함의. 『북한학보』, 36집 1호, 75-108.

박종철·김영윤·이우영(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 조사 및 개선방향』. 민족통일원.

박현주(2006). 글로벌 대중문화물의 한국적 변용과 탈식민주의적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4권 3호. 35-72.

배규식·김화순(2008). 탈북이주민 노동시장 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성숙희(2005). 북한이탈주민의 한국방송 수용.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신현준(2005). K-pop의 문화정치(학): 월경(越境)하는 대중음악에 관한 하나의 사례연구. 『언론과 사회』, 13권 3호, 7-36.

심두보·노광우 (2011). 유투브와 소녀시대 팬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1호, 125-137.

오양열(2011).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전망. 『플랫폼』, 26권, 16-23.
오원환(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세경·이경숙. 동북아시아 3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적 근접성, 『한국언론학보』, 45권, 3호, 서울: 한국언론학회, 2001.
윤선희(2011).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 변화.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435-501.
윤인진(2010). 북한이주민. 서울 : 집문당.
이기동(2011).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과 체체 변화. 『북한학보』, 36권 2호, 8-39.
이민규·우형진(2004).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248-273.
이창현(2000).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151-186.
이창현·우민규(2008).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방송 수용 특성과 미디어 교육의 방향. 『북한연구학회』, 제11권 제2호, 197-225쪽.
전우택·민성길(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오름.
정병호(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0집 1호, 33-62.
정수영(2011). 일본 내 한류 지형의 탐색 및 한류 수용자의 문화적 실천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20호, 207-239.
조현성·박영정·홍기원(2008). 2008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영진(2011). 북한에 번지는 한류의 불길. 『북한』, 477호, 123-129.
허진(2002).중국의 한류 현상과 한국 TV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권 1호, 496-529.
e-나라지표. 새터민 입국현황. 통일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4&bbs=INDX_001&clas_div=A
Ang, Ien.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New York: Routledge, 1989.

Elasmar, M., & Hunter, J. (1996). The impact of foreign TV upon a domestic audience: A meta analysis. *Communication Yearbook, 80,* 47-69.

Hoskins, Colin., & Mirus, Rolf. "Reasons for the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mers." *Media, culture and society, 10,* 1988.

Liebes, Tamar. & Katz, Elihu. *The export of meaning: Cross-cultural readings of Dallas* 2nd ed. Cambridge: Polity Press, 1983.

Morley, David. *Television, audiences and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2.

Shenkar, O. (2001). Cultural distance revisited: Towards a more rigorou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ultural differe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2*(3), 519-535.

Straubhaar, Joseph. D. "Beyond media imperialism: Assymetrical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proxim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8*, 1991.

Waterman, D. and E. Rogers (1994), "The Economics of Television Program Production and Trade in Far East Asia, *Journal of Communication, 44*(3), 89-111.

[별첨 1] 설문지

“설문에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본 설문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대중문화(드라마, 영화, 노래, 뉴스 등) 수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실시됩니다.

❍ 연구는 2012 년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연구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습니다.

❍ 설문의 응답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응답 내용을 유출시키거나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한 연구입니다. 설문 문항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이나 연구에 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오원환 박사(ak731@naver.com, 02-3290-1434)나 이미나 박사(minalee@sookmyung.ac.kr, 02-2077-754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질문은 한국의 드라마, 가요 등을 언제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 북한에 있었을 때 질문입니다. 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1.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① 텔레비전(전파) ② 테이프 재생기 ③ 알판(CD/DVD플레이어) 재생기 ④ 컴퓨터 ⑤ 휴대용(PMP, MP4) 재생기

2.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한국 가요나 노래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① 텔레비전(전파) ② 라디오(전파) ③ 알판(CD/DVD플레이어) 재생기 ④ 컴퓨터 ⑤ 휴대용(PMP, MP3) 재생기

3.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한국에 대한 소식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① 텔레비전 ② 라디오 ③ 휴대폰(중국/한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 ④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⑤ 삐라 등 전단지

4.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소식 등을 듣고 볼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까?
① 텔레비전 ② 라디오 ③ 알판 ④ 컴퓨터 ⑤ 휴대용 기기(PMP, MP3/4) ⑥ 휴대폰

5. 북한에서 살았던 시기에 다음 항목을 어느 정도 이용하였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텔레비전 드라마: _____ 개 이상을 봤음
(예: 풀하우스, 파리의 연인, 내 이름은 김삼순 등 3개 이상을 봤음)
◈ 한국 영화: _____ 개 이상을 봤음
◈ 라디오의 뉴스 방송: 일주일에 약 _____ 시간 _____ 분 정도 들었다 (예: 일주일에 1시간 20분 정도 들었다)
◈ 대중음악: 일주일에 약 _____ 시간 _____분 정도 들었다 (예: 일주일에 약 3시간 0분 정도 들었다)
◈ 텔레비전의 가요 프로그램: 일주일에 약 _____ 시간 _____분 정도 들었다 (예: 일주일에 0시간 30분 정도 들었다)

6.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가요, 뉴스 등을 주로 어떻게 접하게 되었습니까? (세 개

중 하나를 선택)

① 남한에서 오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를 직접 잡아서 보거나 들었다.

②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알판 등을 빌리거나 사서 보거나 들었다.

③ 장마당에서 직접 알판 등을 사서 봤다.

④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옆 칸에 써주세요.

_____

7.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가요 등을 접할 때 주로 누구와 같이 보셨습니까?

① 혼자서 봤다 ② 친구들과 함께 봤다 ③ 가족과 함께 봤다④ 그 밖에 다른 방법 _____

8.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가요 등을 처음으로 직접 보고 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약 _____년

9. 북한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요 등을 보고 들은 이후에 어느 정도 자주 이용했습니까?

※ 탈북 이후 한국에 오기 전까지(중국, 태국 등 다른 체류 국가에 있었을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중국이나 태국 등에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요, 한국 소식은 어떤 것으로 보았습니까?

① 텔레비전 ② 라디오 ③ 인터넷 ④ 알판이나 MP3

⑤ 영화 극장

11. 중국이나 태국 등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한국드라마 ② 한국영화 ③ 한국 가요 프로그램 ④ 한국 관련 방송 뉴스

12. 중국이나 태국 등에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 영화, 뉴스, 노래 등을 어느 정도 봤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텔레비전 드라마: _____ 개 이상을 봤음

◈ 한국 영화: _____ 개 이상을 봤음

◈ 한국 관련 텔레비전 뉴스 방송: 일주일 약 _____시간 _____분 보았다.

◈ 한국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 일주일 약 _____분 보았다.

◈ 한국 대중 가요: 일주일 약 _____시간 _____분 들었다.

13. 중국이나 태국에서 한국 방송이나 한국 소식을 가장 많이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텔레비전(위성) 방송을 보면서

② 인터넷으로 보면서

③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보여줘서

④ 가족, 친척, 친구, 아는 사람에게 들어서

14. 중국이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 등을 누구랑 같이 보았습니까?

① 혼자서 봤다 ② 친구들과 함께 봤다 ③ 가족과 함께 봤다

④그 밖에 다른 사람 _____

※ 한국에 온 후 조사과정 기간과 하나원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조사 기관과 하나원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요, 뉴스 등을 하루에 얼마나 보았습니까?

① 거의 보지 않음 ② 하루 1~2 시간 정도

③ 하루 3~4시간 정도 ④ 하루 5시간 이상

16. 조사 기관과 하나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 드라마 ② 가요 프로그램 ③ 뉴스 방송 ④ 영화

17. 조사 기관과 하나원에서 무엇을 많이 봤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텔레비전 드라마: _____ 개 이상을 봤음
◈ 영화: _____ 개 이상을 봤음
◈ 뉴스 방송: 하루에 약 _____ 시간 _____분 보았다.
◈ 가요 프로그램: 하루에 약 _____시간 _____분 보았다.

※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답해 주십시오.

18.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다음 항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본 경험이 없다면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북한의 드라마와 영화와 줄거리가 많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드라마/영화는 한국의 사실을 잘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드라마/영화의 배경은 처음 보는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드라마/영화에는 알아 들지 못하는 말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드라마/영화에서 배우의 모습은 북한 사람들의 생김새와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19.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 텔레비전/라디오 **뉴스**를 직접 잡아서 혹은 몰래 들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답해 주십시오(경험이 없다면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뉴스는 한국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다.	①	②	③	④	⑤

20.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다음 항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한국의 노래를 들어 본 경험이 없다면 답하지 않습니다).

	선여 그렇지 않다		모동이다		매우 그렇다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노래의 가사는 이해가 안 됐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노래를 자주 불렀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노래를 친구들과 같이 불렀다.	①	②	③	④	⑤

21.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솔직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정직하다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착하다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서로 돕는다
다정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다정하다
친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친절하다
가난하다	①	②	③	④	⑤	부유하다

22. 현재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한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북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같은 동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생각이 같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행동이 같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비슷한 풍습을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사람들에게는 돈이 최고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가족관계는 북한의 가족 관계와 같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의 친구관계는 북한의 친구 관계와 같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에서는 명문대에 들어가야 성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 해야 성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음은 현재 귀하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직장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국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옳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남북한 대표팀이 경기를 하면 북한을 응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방송에서 북한을 비난하면 기분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방송에서는 북한의 나쁜 모습만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나는 마음이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나는 몸이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국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말을 하면 주변의 한국 사람들이 나를 쳐다 본다.	①	②	③	④	⑤
5년 뒤의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탈북 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언제 탈북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26.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먹고 살기 힘들어서 ②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③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④ 북한 사회가 싫어서

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오라고 해서 ⑥ 돈을 벌기 위해서

27. 한국에 가려고 탈북 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8.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같은 동포기 때문에

②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③ 한국에서는 신변 안전이 보장돼서

④ 한국 주민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⑤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에 있어서

28. 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오래 머문 나라는 어디입니까?

① 중국 ② 태국 ③ 베트남 ④ 라오스 ⑤ 몽골

⑥ 그 밖에 다른 나라 _____

29. 그 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_____년_____개월

30. 언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까? _____년_____월

※ 다음은 자료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_____ 년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북한에서의 학력

① 인민학교(소학교) 졸업·중퇴 ② 고등중학교 졸업·중퇴

③ 전문학교 졸업·중퇴 ④ 대학교 졸업·중퇴

⑤ 나는 학교에 안 다녔다.

□고향: _____도 _____시(군)

□북한에서 장사를 했다면 어떤 장사를 했는지 써 주십시오._____

□ 북한에서의 부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농부 ② 노동자 ③ 어부 ④ 간부

⑤ 교사(교수, 선생님, 의사) ⑥ 기타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① 혼자 살고 있음

② 가족과 같이 살고 있음(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음)

③ 형제와 같이 살고 있음 ④ 친구와 같이 살고 있음 ⑤ 기타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검정고시 준비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대학생

⑤ 대학교 휴학 중 ⑥ 직장인(정규직) ⑦ 아르바이트 ⑧ 가정주부

⑨ 취업준비생(자격증 공부) ⑩ 무직

"설문에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